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고양시 내일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안 지 호
김 은 경
정 고 은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고양시 내일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안지호(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은경(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정고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발 행 일 2021년 12월 31일

저 자 안지호, 김은경, 정고은

발 행 인 정원호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89-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4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7
제2장 청년정책의 개념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9
제1절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	11
제2절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동향	15
제3장 고양시 청년정책 실태 분석	23
제1절 고양시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	25
제2절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35
제3절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38
제4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청취다방, 28청춘창업소)	40
제4장 고양시 청년 생활실태 및 청년 지원공간 이용방안 조사	45
제1절 고양시 청년 인구사회학적 특징	47
제2절 조사 개요	66
제3절 분석 결과	68

제4절 정책 제언	109
-----------------	-----

제5장 결론: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발전방안	111
---------------------------------------	------------

제1절 ‘내일꿈제작소’의 세 가지 원칙	113
-----------------------------	-----

제2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126
------------------------------	-----

참고문헌	136
-------------------	------------

부록	139
-----------------	------------

Abstract	164
-----------------------	------------

표 목차

[표 1-1] 청년 자원공간 관련 선행연구	5
[표 1-2] 정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FGI	7
[표 2-1] 「청년기본법」 제3조	11
[표 2-2] 청년정책 관련 법률 및 청년 연령 범위	12
[표 2-3]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흐름	16
[표 2-4]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7
[표 3-1]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25
[표 3-2] 고양시 청년정책 지원제도 구축 경과	28
[표 3-3]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총괄 현황	30
[표 3-4] 고양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교육 분야)	33
[표 3-5] 고양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주거·생활 분야, 참여·권리 분야)	34
[표 4-1] 고양시 연도별 전입전출 현황(단위: 가구 건, %)	52
[표 4-2] 고양시 청년 연령별 구분(상대적 서술)	58
[표 4-3]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고양시 청년 범주화	59
[표 4-4] 항목별 설문지 내용	67
[표 4-5] 응답자 기술 통계(n=300)	68
[표 4-6] 청년 가구 유형(n=300)	70
[표 4-7]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n=300)	73
[표 4-8] 연 최소 주거비(n=300)	74
[표 4-9] 주거 관련 애로사항 - 1순위(n=136)	76
[표 4-10] 주거 관련 애로사항 - 복수응답 허용(n=136)	76
[표 4-11] 청년 자원공간 인지 여부(n=300)	77
[표 4-12] 청년 공간 이용 경험(n=57)	78
[표 4-13]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자원공간 시설 만족도(n=13)	79
[표 4-14]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자원공간 프로그램 만족도(n=13)	80

[표 4-15] 청년정책 제공 방식(n=300)	81
[표 4-16] 청년 자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1순위(n=300)	83
[표 4-17] 청년 자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복수 응답(n=300)	84
[표 4-18] 고양시 청년정책 인지 정도(n=300)	85
[표 4-19] 고양시 청년정책 경험 여부(n=300)	86
[표 4-20]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정책 만족도(n=41)	87
[표 4-21]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1순위(n=300)	89
[표 4-22]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복수 응답(n=300)	89
[표 4-23]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1순위(n=300)	91
[표 4-24]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중복 응답(n=300)	91
[표 4-25] 무직 기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n=300)	92
[표 4-26] 무직 기간에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n=300)	92
[표 4-27]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1순위(n=300)	93
[표 4-28]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복수 응답(n=300)	94
[표 4-29] 고양시 소재의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 - 1순위(n=300)	95
[표 4-30] 고양시 소재의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 - 복수 응답 (n=300)	95
[표 4-31]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1순위(n=300)	96
[표 4-32]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복수 응답(n=300)	97
[표 4-33] 지난 한 달간 주요하게 느낀 감정 1순위(n=300)	97
[표 4-34] 주관적인 건강 상태(n=300)	98
[표 4-35] 일주일당 아침식사 횟수(n=300)	99
[표 4-36] 아침식사를 함께하는 인원(n=300)	99
[표 4-37] 일주일당 점심식사 횟수(n=300)	100
[표 4-38]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인원(n=300)	100
[표 4-39] 일주일당 저녁식사 횟수(n=300)	101
[표 4-40]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인원(n=300)	101

[표 4-41] 평일에 외부에서 밥을 사 먹은 횟수(n=300)	102
[표 4-42] 주중 본인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n=300)	102
[표 4-43] 고양시 청년들의 관심 분야(n=300)	103
[표 4-44] 주관적인 사회적 불평등 정도(n=300)	104
[표 4-45] 주관적인 고양시 지역 사회 신뢰도 정도(n=300)	105
[표 4-46] 주관적인 고양시에서 삶의 만족도(n=300)	105
[표 4-47] 주관적인 고양시 애착도(n=300)	106
[표 4-48]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n=300)	107
[표 4-49] 청년 관련 조직 참여 의사(n=300)	107
[표 4-50] 청년 관련 활동 조직 개수(n=8)	108
[표 4-51] 청년 관련 조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n=8)	108

그림 목차

[그림 2-1]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체계도	19
[그림 2-2] 청년정책조정실 조직도	21
[그림 2-3]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체계	22
[그림 3-1]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비전 및 목표·전략	26
[그림 3-2] 고양 '청년희망지대' 조성 현황	29
[그림 3-3] 고양시 청년담당관 조직도(2022.11.18, 기준)	35
[그림 3-4]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37
[그림 3-5] 청취다방 허브 공간시설	41
[그림 3-6] 28청춘창업소 공간시설	43
[그림 4-1] 2000년과 2021년 고양시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48
[그림 4-2] 연도별 고양시 연령 분포	49
[그림 4-3] 고양시 연령별 전입전출 비율(단위: 가구 건, %)	53
[그림 4-4] 고양시 1인가구 연령별 분포	56
[그림 4-5] 고양시 연령별 도시 공간 애착도(소속감, 정주의식)	57
[그림 4-6] 1기 신도시 및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2000~2011년)	64
[그림 4-7] 청년 가구 유형(n=300)	70
[그림 4-8] 연령별 청년 가구 유형(n=300)	71
[그림 4-9]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n=300)	72
[그림 4-10] 주거 관련 애로사항 - 1순위(n=136)	75
[그림 4-11] 청년 지원공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77
[그림 4-12]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n=13)	79
[그림 4-13] 청년 지원공간 필요성 및 정책 제공방식 선호유형	81
[그림 4-14]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1순위(n=300)	82
[그림 4-15]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복수 응답(n=300)	84
[그림 4-16] 고양시 청년정책 경험 여부(n=300)	86

[그림 4-17]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정책 만족도(n=41)	87
[그림 4-18]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1순위(n=300)	88
[그림 4-19]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1순위(n=300)	90
[그림 4-20]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1순위(n=300)	93
[그림 4-21]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1순위(n=300)	96
[그림 4-22] 주관적인 건강 상태(n=300)	98
[그림 4-23] 고양시 청년들의 관심 분야(n=300)	103
[그림 4-24] 주관적인 사회적 불평등 정도(n=300)	104
[그림 4-25] 주관적인 고양시 애착도(n=300)	106
[그림 4-26]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n=300)	107
[그림 4-27] 청년 관련 활동 조직 개수(n=8)	108
[그림 5-1]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모형	127
[그림 5-2]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아래로부터의 청년지원정책)	135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공간 정책: 전체와 부분

- 이 연구는 2024년 준공 예정인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인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도출이라는 목적이 있음
- 고양시 청년담당관은 ‘내일꿈제작소’가 고양시 기존 청년공간인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세대까지 공존할 수 있는 청년 지원공간으로서 비전과 역할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
- ‘내일꿈제작소’의 기능과 프로그램 도출이라는 부분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주요 사업, 청년정책 관련 조례 등을 중심으로 고양시 청년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맥락에서 청년 지원공간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음
-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의 비전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Youth Policy From Below)

-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의 개념을 토대로 수행되었음
-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은 그 정의나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는 구성물로 간주함
- 또한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모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정적 특징을 전제로 함
- 연구진은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 개념’을 통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 지원공간의 비전과 역할을 도출하는 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음
- 고양시 특성에 맞는 청년 지원공간의 비전과 역할 그리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심층면접,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반영함
- 고양시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적 욕구 조사를 통해 고양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맥락적 자료 수집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내일꿈제작소’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기능 도출

3.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

□ 청년의 법적·사회적 개념

- 청년의 법적 개념은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 근거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
 - 이 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청년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연령 범위는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개념으로서 청년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
 -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청년기의 취업, 독립, 결혼 등은 의무적 발달 과업의 일환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워졌음
 - 따라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논의의 대상으로서 청년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청년 개념과 정의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

-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명시
 - 이 법에 따르면, 청년 발전이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 정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생애주기(학습기, 노동진입기, 가정형성기)에 맞추어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전 과정에 걸친 청년지원정책을 마련

4.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동향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흐름

- 초기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주로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청년층의 교육, 주거·생활, 참여·권리 등 종합적 분야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음
-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3월 ‘청년발전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되었고, 2020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청년기본법안이 제정됨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흐름〉

일자	주요 내용
2019.07.30.	• 청년정책추진단 출범
2020.03.26.	•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2020.08.05.	• 청년기본법 시행
2020.09.18.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
2020.09.19.	• 제1회 청년의 날 개최
2020.12.23.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1.03.30.	•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2021.06.15.	• 청년정책조정실 출범
2021.8.26.	• 청년특별대책 발표
2021.09.07.	• 9개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전담조직 소실
2021.09.18.	• 제2회 청년의 날 개최
2021.11.13. ~ 2021.12.04.	• 청년참여 거버넌스 1~5차
2021.11.17.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2021.11.30.	•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1.12.30.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
2022.02.14.	•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2022.09.17.	• 제3회 청년의 날 개최

5. 고양시 청년정책 실태 분석

□ 고양시 청년정책 수립 현황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 고양시 차원에서는 2017년 4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
- 고양시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여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수립된 계획으로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대응하고 고양시 청년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
- 이 계획은 크게 일자리·교육, 문화·여가, 주거·복지, 참여·소통 분야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

-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조정실),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등의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매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
- 시행계획은 청년 문제를 사회구조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정책 총괄 현황과 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양시 청년정책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고양시 청년정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고양시는 2017년 4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시설 지원과 주거안정 지원 규정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지원 제도를 확대·구축해 나갔음
- 고양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정책 추진 방향은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역량 강화, 청년 자립 지원과 삶의 기본권 보장, 청년 주도성 확대 등으로 설정

□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현황

- 청년 지원공간 분야에서는 고양 ‘청년희망지대’를 조성하여 청년 취·창업 지원, 소통과 교육 인프라 구축 공간 확충
 - ‘청취다방 허브 및 우리동네 청취다방’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며, 청년주도형 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8청춘창업소’는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며, 고양시 청년 창업가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고양 ‘청년희망지대’ 조성 현황〉



6. 고양시 청년 생활 실태와 청년 지원공간 이용 방안 조사

□ 조사 개요

- 고양시 거주 1인가구와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사회 욕구도 조사를 시행하여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고양시 내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표본 크기는 무작위 추출 300명으로 진행
- 전체 응답자 300명 중 남성은 152명(50.7%), 여성은 148명(49.3%), 만 20세 미만은 20명(6.7%), 만 20~24세는 65명(21.7%), 만 25~29세는 74명(24.7%), 만 30~34세는 72명(24.0%), 만 35~39세는 69명(23%)으로 확인됨

〈항목별 설문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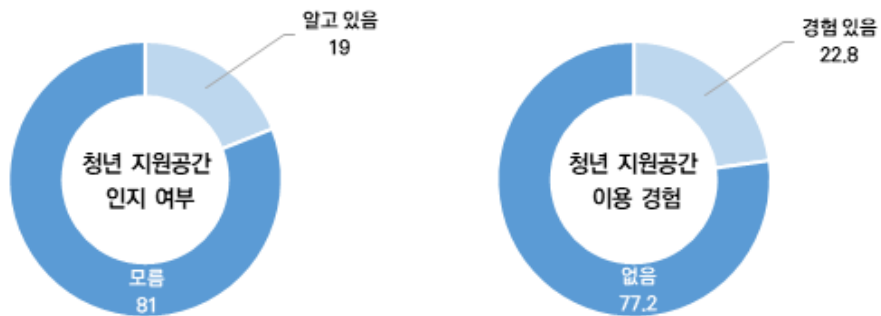
연번	항목	문항 요약
1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년도 - 성별 - 현재 주거지(스크리닝을 위함) - 고양시 내 거주 중인 지역구
2	A. 고양시 청년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형태 - 주택 유형 - 고양시 거주 애로사항 - 고양시 거주 이유 - 고양시 외부로 이사 계획
3	B.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및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지원공간 만족도 - 청년 지원공간 필요성 - 고양시 청년정책 인식 - 고양시 청년정책 우선 순위
4	C. 고양시 청년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 구직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자원
5	D. 청년의 건강 및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및 건강 상태 - 사회적 불평등 - 지역 사회 신뢰 정도

□ 주요 분석 결과

- 청년 지원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 평균 19.0%였고, 81.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경험은 2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지원공간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 지원공간 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 만족도는 69.2%, 프로그램 만족도는 53.8%로 나타났으며, 청년 지원공간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77.0%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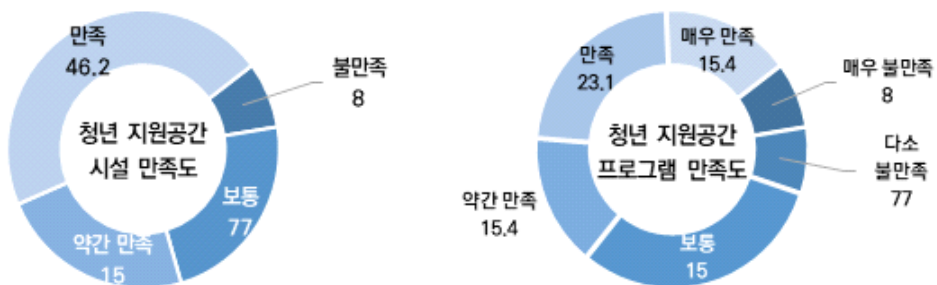
〈청년 지원공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단위: %)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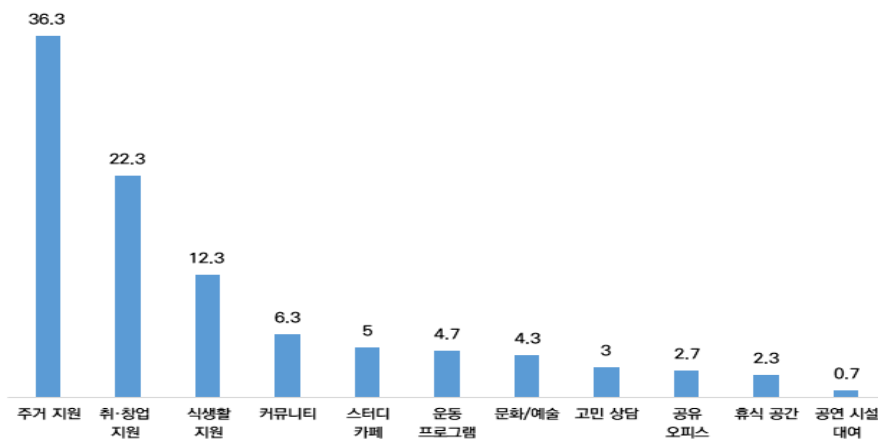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순위로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고(36.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22.3%)과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12.3%), 커뮤니티 프로그램(6.3%)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청년들이 주된 관심 영역은 취창업 문제(32.0%), 주거 문제(20.3%), 금융, 제테크 이슈 등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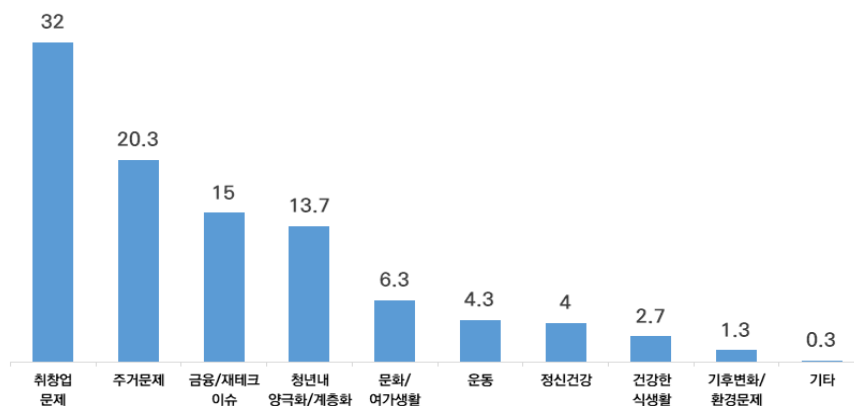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1순위(n=300)〉

(단위: %)



〈고양시 청년들의 관심 분야(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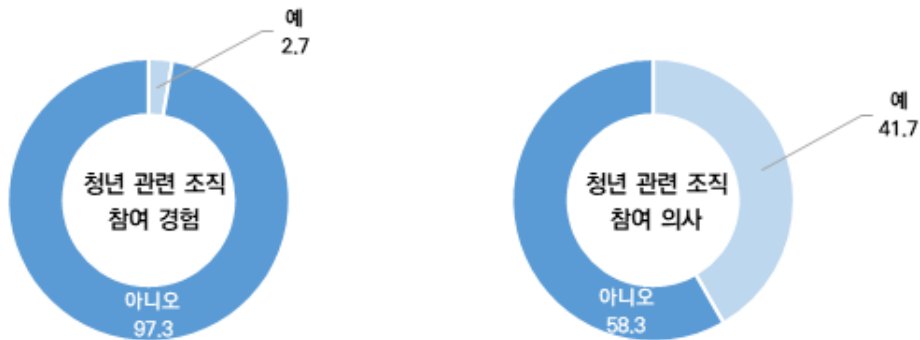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은 2.7%만 참여해 봤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의향에서는 41.7%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n=300)〉

(단위: %)



7. 내일꿈제작소 구성의 세 가지 원칙

□ 내일꿈제작소 구성의 세 가지 원칙

-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함
 - 첫째, 고양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로 구성되어야 함
 - 둘째, ‘내일꿈제작소’는 고양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년 지원공간과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상이 가능
 - 셋째, 기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과 차별성과 협력 도출
 -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인 청년의 당사자성과 두 번째 원칙인 고양시 특성에 비해 수단적인 특성과 부분적 특성이 있지만, 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자 지원공간의 미시적 운영 방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연구진은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구성의 원칙에 포함하였음

□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기본 개념: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
 - 연구진은 내일꿈제작소 구성의 세 가지 원칙과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을 결합하여 내일꿈제작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개념 구성
 -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당사자성, 정책의 과정성(유연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결합한 상향식 정책모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충분한 여백을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특색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정책의 당사자성, 지역성 그리고 과정성으로 구성
-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핵심 가치
 - 고양시의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들이 지원공간의 주인이기 때문이 시가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고양시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청년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귀결
- 주요 사업 분야
 - 첫 번째는 청년 지원공간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제공에 상담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임
 - 이러한 정보 제공에 상담 기능을 추가한 청년 지원공간은 서울시 오랑에

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고양시 관내의 명지병원과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명지병원과 협력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기능 수행 가능

- 두 번째는 고양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스마트농업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
- 고양시는 지역적 특성인 도시농업과 지식재산 융·복합콘텐츠의 미디어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선택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음
- 고양시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높게 나와 이들 기능을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청년 네트워크 구성

-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지원공간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핵심 요소임
- 그러나 청년 지원공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임
-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 공간 운영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이미 서울시는 청년 지원공간을 청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년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를 수행하고 있는데 고양시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 단체의 역량 강화와 청년 지원공간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아래로부터의 청년지원정책)〉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

지역성

과정성

당사자성

핵심가치 : 소통과 공감

주요기능	상담 / 정보제공	지역특화산업 연계 분야		취창업 분야
		미디어	도시농업	
교육	청년 예술치료 아카데미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	청년 농업 아카데미 청년치유농업 아카데미 청년 환경 아카데미 쿠킹클래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역 병원, 미디어 기업, 농업 관련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			
문화복지/ 참여소통	음악, 연극 공연	미디어 전시 (디지털 아트)	청년 텃밭 가꾸기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팜파티 라이브커머스	법무세무상담 네트워킹 파티 및 이벤트
	스타트업 전시회 / 고양 청년 포럼 / 공모전 개최 등			
시설	상담실 예술치료센터	XR 스튜디오	옥상정원 실내 식물재배시설	커뮤니티 공간 공동작업실 회의, 세미나, 포럼 공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2024년 준공 예정인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인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고양시 청년담당관은 ‘내일꿈제작소’가 고양시 기존 청년 지원공간인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세대까지 공존할 수 있는 청년 지원공간으로서 비전과 역할을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고양시 청년담당관이 요구하는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지원공간과 차별화를 통해 내일꿈제작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것은 고양시 청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내일꿈제작소의 기능과 프로그램 도출이라는 부분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내일꿈제작소’ 역시 이러한 고양시 청년정책의 큰 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청년정책 맥락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일꿈제작소’의 역할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담당부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주요 사업, 청년정책 관련 조례 등 현재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황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28청춘창업소와 청취다방)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 속에서 기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역할은 물론이고 문제점 또한 도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의 비전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청년 지원공간 관련 연구는 주로 청년공간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 형성 방안과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용원·박주로·임병훈(2017)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대상으로 공간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무중력지대는 휴식, 참여, 정보 제공, 청년정책 활동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단순 공간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연결, 지역 청년 문제 해결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중력지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개별 위탁의 개선,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기초 재정 안정화, 종합운영기구 조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재 외(2015)는 서울시 성북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진입과 정착을 위한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간 수요 조사와 특성 분석, 성북구 내 청년 공간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공간 지원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청년세대에게 공간의 문제는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지속가능한 활동과 생존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건’¹⁾이라고 정의하면서, 청년의 사회적 활동과 공간의 문제를 일차원적으로만 접근하는 데 따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이 매개되지 않으면 정책은 일시적 대중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정책 전환과 대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현정·하현정(2020)의 28청춘창업소를 중심으로 고양시 창업생태계 현황 조사와 지역창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8청춘창업소가 고양시 창업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창업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과 고양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8청춘창업소-청취다방-내일꿈제작소’의 3각 연대를 통한 다각적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¹⁾ 이원재 외(2015),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17.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년정책 검토, 청년공간 주요 사례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청년 지원공간의 기능과 목적,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 지원 방안을 고려하여 청년 지원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이나 해당 지역 청년의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청년의 사회적 욕구도 조사와 실태조사, 현장연구 등을 활용하여 고양시의 지역성을 최대한 반영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1] 청년 지원공간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연구자: 이용원·박주로·임병훈 (2017) 연구 목적: 청년공간조성의 의의 및 기대효과 도출을 통한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방안 및 장기전략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배경 및 목적, 무중력지대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가치, 주요 기능, 국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 및 시사점 도출 무중력지대 운영 방식 전환을 위한 기초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운영기구 설치, 조성전략 수립 및 기반 마련 방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을 제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 이원재 외(2015) 연구 목적: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의 담론, 정책 등을 검토하고 관련 공간 현황 조사·연구 및 공간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라운드테이블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수요 조사 및 특성 분석 타 지역 청년 공간 조사를 통한 성북구 청년 공간의 특성과 입지조건 비교 분석, 성북구 20개 동 소재지인 청년 공간 사례조사, 공간 운영 주체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한 서울시 성북구 내 청년 공간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성북지역의 현장 사례 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간 지원 정책 방안 제시

구 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고양시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28청춘 창업소를 중심으로 연구자: 이현정·하현정(2020) 연구 목적: 28청춘창업소를 중심으로 고양시 청년창업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및 운영 체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조사 심층면접 설문조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 중심의 고양시 창업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및 정책적 방향 모색 28청춘창업소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고양시 지역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제시 고양시 지역창업생태계에서 28청춘 사업소가 지닌 의미와 역할, 이에 따른 운영 목적 및 방안 조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자: 최영화·이선정(2020) 연구 목적: 인천시 청년문화 여건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국내외 청년문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분석을 통한 인천시 청년문화 지원 방안 마련 및 시사점 도출,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사례조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과 청년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청년문화트렌드 분석을 통해 청년문화의 특성 검토 인천시 청년문화 현황 분석 및 문화 활동 실태 조사 국내외 청년문화 지원 우수사례 조사, 선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타 지자체 및 청년단체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가 참고할 시사점 도출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 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도출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고양 내일 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연구자: 안지호·김은경·정고은(2022) 연구 목적: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인 ‘내일꿈제작소’의 활성화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조사 심층면접 설문조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고양시의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및 실태 분석 청년 지원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사례연구 고양시 청년 대상 생활실태 및 사회적 욕구조사 정책정책전문가, 청년활동가와의 자문과 심층면접을 통한 ‘내일꿈제작소’ 활성화 방안 도출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연구, 현장연구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에 입각하여 고양시 청년 생활 실태 및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청년 지원공간을 통해 고양시 청년정책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1. 연구방법과 분석틀: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Youth Policy From Below)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Youth Policy From Below)’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수행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은 그 정의나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는 구성물로 간주한다. 또한 청년정책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모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정적 특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 개념’을 통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 지원공간의 비전과 역할을 도출하는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²⁾ 또한 고양시 특성에 맞는 청년공간의 비전과 역할 그리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심층면접, FGI를 통해 청년지원 공간 정책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2] 정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FGI

내용	대상	비고
연구의 방향과 설문문항 구성	김태은 박사(전 성동구 창업발전소장) 나경호 작가(고양시 청년활동가)	2022.09.08
설문문항 구성	김태은 박사(전 성동구 창업발전소장) 박준영(서울대 지리학과 박사과정)	2022.09.16
서울시 청년공간 지원 사례	조은선 센터장(성동구청청년지원센터) 서주석 센터장(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2022.09.23

²⁾ 짐 아이프, 여지영 역(2018), 『아래로부터의 인권: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인권의 실현』, 서울: 인간과 복지, 123.

고양시 청년공간 지원 사례	김민수 팀장(고양산업진흥원 혁신창업팀)	2022.09.28
서울시 청년공간 지원 사례	장상길 팀장(한양대 창업지원단)	2022.09.29
설문문항 구성	김태은 박사(전 성동구 창업발전소장) 박준영(서울대 지리학과 박사과정)	2022.10.04
고양시 청년공간 지원 사례	안진아 주무관(고양시 청년담당관)	2022.10.07
서울시 청년공간 지원 사례	박금희 센터장(서울시 청년허브)	2022.10.07
설문문항 구성	김태은 박사(전 성동구 창업발전소장) 박준영(서울대 지리학과 박사과정)	2022.10.19
청년정책의 맥락	금현섭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11.18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최재혁 위원장(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2022.11.22
청년정책의 맥락	임도빈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11.25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김혜미 부위원장(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2021.11.29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김홍원 과장, 성의재 팀장, 김난영 팀장(관악구 청년정책과)	2022.11.30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최성원 청년농업인(스마트 팜 CEO)	2022.12.01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전성민 前대표(고양시 청소년재단)	2022.12.15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안승혜 책임(고양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2022.12.21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주지은 팀장(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이지희 팀장(명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2022.12.22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	이광미 팀장(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	2022.12.28

또한 연구자는 정책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적 욕구 조사를 통해 고양시 청년정책의 맥락적 자료 수집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내일꿈제작소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기능 도출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청년정책의 개념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제1절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동향

제절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책수요 대상자인 ‘청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개념과 정의는 크게 법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청년의 법적 개념은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 근거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이라 할 수 있다.³⁾ 이와 같이 정책 대상자로서 청년의 법적 개념은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표 2-1] 「청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출처〉 「청년기본법」

3) 「청년기본법」 제3조.

4)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몇 차례의 법안 발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 기준 2016년 5월 30일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19년까지 약 10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각 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8~39세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19~34세로 최종 확정되었다.

청년의 연령 범위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정의하는 데서 부처별로 정책적 관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⁵⁾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 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⁶⁾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법률 등에서도 청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법률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2] 청년정책 관련 법률 및 청년 연령 범위

법률명	청년 연령 범위	주요내용
고용정책기본법	타법 준용	•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또는 15~34세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위원회 설치 등 청년의 나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9세 이하	• 청년상인의 육성, 청년상인의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우대 •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자료〉 오재호 외(2020),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0-14, 29.

5) 전경숙(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20.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청년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년 연령 범위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⁷⁾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과 창원시, 경기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 범위로 정하고 있고, 전남 장흥군, 곡성군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까지로 청년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 청년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청년의 범주는 15세부터 49세에 이르기까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의 정의는 법적 개념 외에도 사회적 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적 개념으로서 청년기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⁸⁾ 즉, 청년기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부모의 집에서 독립된 주거로의 변화,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이행 등의 측면에서 과도기적 단계 또는 전환기라 볼 수 있는 것이다.⁹⁾ 그러나 전통적 산업사회 이후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청년기의 취업, 독립, 결혼 등은 청년의 의무적 발달 과업의 일환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이행과정’의 지연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청년 연령 범위의 상한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연령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청년 연령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집단 내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논의의 대상으로서 청년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청년의 개념과 정의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면밀하게 조사·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 2015년 1월 2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조례의 수는 2021년 기준 총 203개에 달하고 있음. 조진우(2021), “지역 청년 활력을 위한 청년기본조례의 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pp.214-215.

8) 전경숙(2021), 전개서, 120.

9) 전경숙(2021), 전개서, 120-121.

‘청년정책’의 개념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이 경우 청년 발전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을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경우¹¹⁾,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생애주기에 맞추어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진로 선택과 교육·훈련 과정, 일자리와 주거 이행, 가족 이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는 크게 학습기, 노동진입기, 가정형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년기 주요 삶의 여건으로는 경제적 여건, 신체·정신적 여건, 참여와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서 청년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청년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년정책은 기존의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의 정책에 비해 역사와 논의가 깊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개념과 정의가 연령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등 명확한 정의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는 더욱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과 정의는 정책의 수립과 비전, 지속성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밀도 높은 청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된다면 청년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0) 「청년기본법」 제3조.

11) 윤태영·박이대승·정준영(2020),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73-74.

12)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제2절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동향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흐름

과거 ‘청년’은 정책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근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취약계층 부양과 국가경제 발전의 주체로 기대되어 왔다.¹³⁾ 그러나 외환위기 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고용 촉진 관련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8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되자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09년 정부는 법제명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일부 법률안을 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2018년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초기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이처럼 주로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청년층의 교육, 주거·생활, 참여·권리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청년정책 전반에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3월에는 ‘청년발전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되었고, 2015년까지 총 3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2019년까지 총 1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2월 4일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청년기본법안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법령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¹³⁾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145.

[표 2-3]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흐름

일자	주요 내용
2019.07.30.	• 청년정책추진단 출범
2020.03.26.	•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
2020.08.05.	• 청년기본법 시행
2020.09.18.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
2020.09.19.	• 제1회 청년의 날 개최
2020.12.23.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1.03.30.	•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2021.06.15.	• 청년정책조정실 출범
2021.8.26.	• 청년특별대책 발표
2021.09.07.	• 9개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전담조직 소실
2021.09.18.	• 제2회 청년의 날 개최
2021.11.13. ~ 2021.12.04.	• 청년참여 거버넌스 1~5차
2021.11.17.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2021.11.30.	•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21.12.30.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
2022.02.14.	•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2022.09.17.	• 제3회 청년의 날 개최

〈자료〉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4-9. 참고하여 정리.

1) 「청년기본법」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전반에서 종합적 지원 근거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제2조),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⁴⁾

〔표 2-4〕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청년기본법」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제4조),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8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9조).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중앙부처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방향,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14) 「청년기본법」 제2조.

2)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¹⁵⁾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며,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하여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지원 정책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수렴되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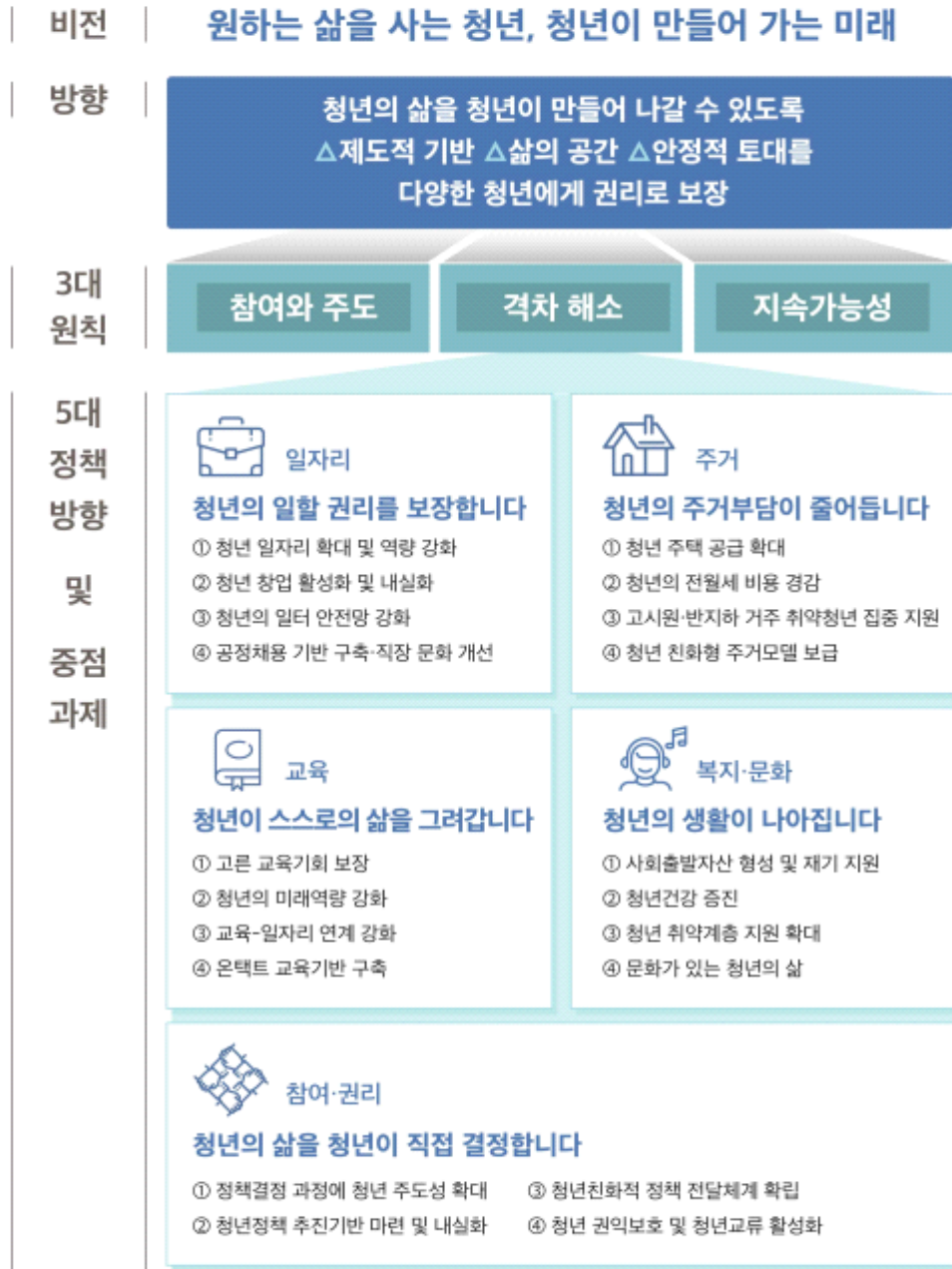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청년의 특성과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 포스트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¹⁶⁾ 기본계획 추진 방향은 청년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하여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미래 변화 선도 주체로서 청년의 역량 강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국정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기본법으로 지역균형 청년정책이 공식 의제화된 만큼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 44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청년 창업 활성화와 내실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거정책으로는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사회출발자산 형성과 재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주도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 「청년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6) 청년 특성은 연령별 △19~24세: 교육(학자금) △25~29세: 취업(일자리) △30~34세: 독립·결혼(주거·자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2-1]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체계도



〈출처〉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3)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으로서 「청년기본법」 제8조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다.¹⁷⁾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¹⁸⁾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이후 2021년 최초 시행계획에 이어 2022년 제2차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2021년은 청년정책 추진 원년으로서 종합적·분야별 대책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2022년 시행계획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 확대와 구체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과제 수는 308건에서 376건, 예산은 23.8조 원에서 24.6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분야별 과제는 과제 수 기준으로 일자리 분야가 39.3%로 가장 높고, 교육 28.5%, 복지·문화 14.4%, 참여·권리 10.6%, 주거가 7.2%로 순으로 나타나며,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분야 비중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⁹⁾

2.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주요 추진 주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9년 7월 청년정책 총괄 조직으로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 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되었다. 이후 9개 주요 부처 내에도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²⁰⁾

17) 「청년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18) 「제1차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관련 32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해당함.

19)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10~11.

[그림 2-2] 청년정책조정실 조직도



〈출처〉 청년포털 웹사이트, 기관소개, <https://2030.go.kr/etc/introYth> (접속일 2022.11.30.)

또한 청년을 단지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수립 참여자’로 인식할 것과 ‘청년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관련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²¹⁾ 2020년 9월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 20명, 위촉직 20명(청년 대표 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부위원장(정부 1, 민간 1), 정부 위원,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1월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총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20)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과단위)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팀 단위)가 해당함.

21)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그림 2-3]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체계



<출처> 청년포털 웹사이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https://2030.go.kr/etc/ythResume> (접속일: 2022.11.30.)

제 3 장

고양시 청년정책 실태 분석

제1절 고양시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

제2절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제3절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제4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청취다방,
28청춘창업소)

제절 고양시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

1. 고양시 청년정책 수립 현황

1)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고양시 차원에서는 2017년 4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고양시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여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²²⁾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2019년 6월 청년시설 지원 기반 마련, 청년 연령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장은 「고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제6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또한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

[표 3-1]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행 2020. 5. 29.]

- ① 고양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19. 6. 7.>
-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²²⁾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제2조.

2)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수립된 정책으로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대응하고, 고양시 청년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일자리·교육 △문화·여가 △주거·복지 △참여·소통 분야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일자리·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 전반의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취업준비교육과 창업 범위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고양시 내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재하고 청년 주도 문화가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거점 형식 또는 소규모 형태의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공유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참여·소통 분야에서는 청년정책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청년협의체와 고양시 간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비전 및 목표·전략



<출처>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기본계획은 5년(2019~2023년)간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은 정책추진 첫 단계로서 청년정책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2~4년차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로, 청년 문화공간 확충과 시범적 복지사업 시행, 각종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일자리·교육(중소기업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 브리지 프로그램, 스타트업 점프업, 교육비 지원, 원어민 멘토링 지원, 공정근로 캠페인 등), 주거·복지(청년 건강검진 지원, 청년 월세자금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등), 문화·여가(청년 문화의 날, 갭이어 축제, 아트마켓, 문화기획자 양성 등), 참여·소통(고양시 청년보고서 발간, 청년 지원공간 건립 등) 분야 주요 사업에서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2023년은 5년차 마지막 단계로서 주거 관련 사업이 배치되었으며, 중기 단계에서 진행된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보완점 등이 검토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3)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

고양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조정실)」,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고양시)」 등의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위하여 매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청년문제를 사회구조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바탕하에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정책 추진 경과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 총괄 현황과 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양시 청년정책 사업의 구체적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고양시 청년정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고양시는 2017년 4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시설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규정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지원 제도를 확대, 구축해 나갔다. 기타 청년정책 관련 조례로는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고양시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거주 청년 느린 학습자의 일상·사회·여가·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표 3-2] 고양시 청년정책 자원제도 구축 경과

구분	주요 내용
20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2019.6): 청년시설 지원 기반 마련, 청년 연령 확대 등 - 개정(2021.12):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등
201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수립
20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20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고양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자료>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청년 지원공간 분야에서는 고양 ‘청년희망지대’를 조성하여 청년 취·창업 지원, 소통 및 교육 인프라 구축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2019년 9월 청년 소통공간으로서 ‘청취다방 허브’가 개소되었고, 2019년 11월 청년 창업공간으로서 ‘28청춘창업소’가 개소되었다. ‘내일꿈제작소’는 청년세대와 아동, 노인세대 등을 포괄하는 소통·교육 종합생활 SOC 복합시설로서 2024년 2월 준공될 계획이다.

[그림 3-2] 고양 ‘청년희망지대’ 조성 현황



〈출처〉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2018년 12월에는 지역 도서관(대화도서관) 내 청년 창업·창의공간으로서 ‘메이커스 페이스’²³⁾를 개소하였다. 현재까지 8,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²⁴⁾ 청년 디지털 교육공간으로서 조성된 ‘꿈틀’은 2021년 5월 개소(화정버스터미널 2층, 102.92㎡)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저탄소 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0월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9년에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

23) 메이커 문화 확산 및 발굴, 제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24) 비전21뉴스(2021.7.6.) “고양시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2021년도 사업 본격 추진.” <http://vision21.kr/news/article.html?no=141905> (접속일: 2022.11.24.)

진대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청년과의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2) 추진 현황

고양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방향은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역량 강화, 청년 자립 지원과 삶의 기본권 보장, 청년 주도성 확대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수립된 고양시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주거·생활 △참여·권리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총 70개 사업으로 계획, 운영되고 있다. 총 예산은 982억 2,200만 원 규모이며, 19개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분류	정책과제	예산액
총 계	70개 사업	98,222
일자리 분야	24개 사업	12,271
	(일자리확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등 (취업 지원) 면접정장 무료대여, 일자리박람회 등 (창업 지원) 청년 창업재정지원 프로그램, 28청춘창업소 운영 등	
교육 분야	12개 사업	13,093
	(취창업 교육·소통 공간 운영) 청취다방, 내일꿈제작소 건립 등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취·창업 역량강화) 청년일생학교,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 등	
주거·생활 분야	18개 사업	71,829
	(주거지원) 고양 청년동지론,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등 (자립·생활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문화지원)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 등	
참여·권리 분야	16개 사업	1,029
	(참여 활성화)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권익 보호)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출처〉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분야별 사업은 일자리 분야가 24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주거·생활 분야 18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 16개 사업, 교육 분야 12개 사업 순이다([표 3-4], [표 3-5] 참조).

(1)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분야는 크게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지원, 청년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청년인턴(뉴딜)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양시 희망 청년인턴 사업, 고양시 희망 내일 공공 일자리 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등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직장 체험 기회 제공 정책 등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

청년 취업지원 정책으로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1인당 연 5회), 인공지능 역량검사 체험 지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취업준비생과 진로탐색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진로 결합형 청년일자리박람회(청년드림 JOB 콘서트)를 개최하여 채용지원, 미래일자리 트렌드 탐색, 진로 멘토링, 취업 컨설팅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주공간과 창업육성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28청춘창업소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 대표적이며, 청년 농업 관련 정책(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아이디어 공모전, 창업포럼, 창업캠프, 창업아카데미, 스타트업 오디션)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 혁신 창업챌린지 사업 추진, 고양 1인 창조기업센터 운영,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청년 공간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청년 공간지원 정책은 ‘청취다방 Hub 및 우리동네청취다방(청년주도형 취업·문화 프

로그램 및 소통공간)’ 운영, 고양 청년 디지털교육 공간 ‘꿈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내일꿈제작소’ 건립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일생학교(일자리센터 취업·진로프로그램),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특화산업 전문교육),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고양벤처농업대학 운영 [청년(예비)농업인 CEO반 교육], 웹툰 창작 교육 및 고양 웹툰 공모전, 청년 기후환경활동가 체험(고양시 청년기후환경활동가 ‘그린홉’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3) 주거·생활 분야

주거·생활 분야는 크게 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 문화지원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양 청년등지론(전세금융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사업,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고양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고양시 탄생 축하 쌀케이크 지원, 고양시 출산지원금, 청년 희망키움통장·내일저축계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지원 정책으로는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공방 등이 있다.

(4) 참여·권리 분야

청년 참여·권리 분야는 크게 청년 참여 활성화 정책과 청년 권익 보호 정책으로 구분된다. 청년 참여 활성화 정책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와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아카데미’ 등 청년 거버넌스 운영, 청년과 소통 활성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 체계 구축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 권익보호 정책으로는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등이 있으며, 고양시 노동 권익센터와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 거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동문제 상담과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4] 고양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교육 분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담당부서
	2021	2022	
일자리 분야 : 24개 사업	10,164	12,271	10개 부서
1.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1,279	514	청년담당관
2. 고양 청년 뉴딜 지원 사업	630	335	청년담당관
3.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사업	-	671	청년담당관
4. 고양청년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	-	228	청년담당관
5. 고양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	356	청년담당관
6.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250	260	청년담당관
7. 고양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2,838	3,430	일자리정책과
8.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	1,231	1,940	일자리정책과
9.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고양청년 희망나래)	20	40	청년담당관
1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7	37	청년담당관
11. 청년일자리박람회(청년드림 JOB콘서트)	160	160	일자리정책과
12.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55	280	여성가족과
13. 고양 청년 창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	-	청년담당관
14. 28청춘창업소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406	532	기업지원과
15. 고양 혁신 창업챌린지	140	146	전략산업과
16. 고양1인창조기업센터 운영	284	164	전략산업과
17.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20	144	일산서구도서관과
18. 사회적경제 컨설팅	30	32	소상공인지원과
19.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200	2,200	소상공인지원과
20.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00	500	소상공인지원과
21.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180	212	농업정책과
2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	4	5	연구개발과
23. 청년농업인 영농 안정화 시범 사업	-	40	도시농업과
2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45	도시농업과
교육 분야 : 12개 사업	14,718	13,093	7개 부서
1. 청취다방Hub 및 우리동네청취다방	568	305	청년담당관
2. 청년 디지털 교육공간 운영	202	29	청년담당관
3.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	10,828	10,572	청년담당관
4.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2,286	1,200	평생교육과
5.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차지원	12	12	농업정책과
6. 청년일생학교(일자리센터 취업진로프로그램)	45	65	일자리정책과
7.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	600	600	일자리정책과
8. 고양 웰툰 공모전	100	90	전략산업과
9. 웰툰창작교육	54	54	전략산업과
10. 청년 기후환경활동가 체험	-	101	환경정책과
11. 농업인 대학 운영	-	15	도시농업과
12.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공모사업 지원	23	50	전략산업과

〈출처〉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표 3-5] 고양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주거·생활 분야, 참여·권리 분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액		담당부서
	2021	2022	
주거·생활 분야 : 18개 사업	61,118	71,829	8개 부서
1. 청년 주거(전세)금융지원(청년통지론)	-	210	청년담당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3,916	청년담당관
3.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911	여성가족과
4. 주거급여사업(청년주거급여)	40,368	43,102	주택과
5.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47	12	녹색도시담당관
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3,258	13,370	청년담당관
7. 청년희망키움통장	119	61	찾아가는복지과
8. 청년저축계좌	557	758	찾아가는복지과
9. 청년내일저축계좌	-	526	찾아가는복지과
10.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282	162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1. 출산지원금	6,121	8,245	여성가족과
12. 탄생 축하 쌀 케이크 지원	142	143	여성가족과
13. 다복꾸러미 지원사업	22	20	여성가족과
14. 저소득 미혼모 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21	181	여성가족과
15.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	40	60	문화예술과
16.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80	80	문화예술과
17. 찾아가는 문화활동	60	70	문화예술과
18. 문화공방	1	2	아동청소년과
참여·권리 분야 : 16개 사업	895	1,029	4개 부서
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6	6	청년담당관
2.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8	8	청년담당관
3.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5	5	청년담당관
4. 청년정책사업 원정대	5	5	청년담당관
5. 고양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	27	27	청년담당관
6. 고양 청년주간행사	30	30	청년담당관
7. 고양시 청년 공감스토리 공모전	-	9	청년담당관
8. 이루어 DREAM	69	70	아동청소년과
9. 청년서포터즈	2	2	아동청소년과
10. 후기청소년커뮤니티	2	2	아동청소년과
11. 대학생사회참여지원	-	3	아동청소년과
12. 소셜기자단	51	72	언론홍보담당관
13. 청년희망레터	-	-	청년담당관
14.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120	120	일자리정책과
15.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320	420	일자리정책과
16.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50	250	일자리정책과

〈출처〉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제2절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1.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1) 지원조직

(1) 청년담당관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 청년전담팀(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청년전담팀이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1월 청년전담부서인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어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지원하고 있다.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지원, 청년정책 아카데미,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추진 등의 업무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년지원팀은 청년 지원공간(청취다방) 운영·총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교육공간(꿈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3] 고양시 청년담당관 조직도(2022.11.18. 기준)



〈자료〉 고양시 웹사이트, 조직도, https://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DeptTree.do (접속일 2022.11.18.) 참고하여 작성.

(2)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2017년 10월 출범한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에 근거한 고양시 청년정책 심의기구이다.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형 기구로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당연직은 제1부시장, 4명 이내의 교육·문화·경제·주택·복지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전문가, 청년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위원은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고양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만 18~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임기 만료 시 위원 공개모집을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고양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3)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2018년 8월 출범한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에 따라 구성되었다. 협의체 인원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고양시 거주 또는 고양시 소재 직장인이나 대학생, 단체·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만 18~39세 이하)을 모집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기준 남성 20명, 여성 10명으로 총 30명의 청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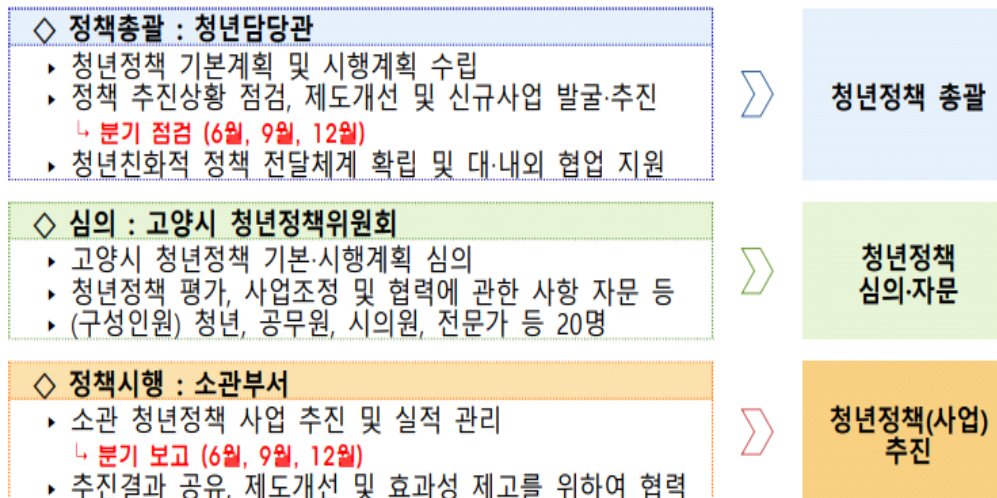
협의체는 일자리 분과, 주거·생활 분과, 복지·문화 분과, 참여·권리 분과, 예술 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고양시 지역 청년과 커뮤니티 형성,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는 월 1~2회 분과별 회의와 연 2~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추진 체계

고양시 차원에서는 ‘청년담당관’이 고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청년담당관은 분기별(6월, 9월, 12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대내외적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관련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청년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 관련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담당관’의 총괄과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정책 심의·자문을 통한 청년정책은 소관부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관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실적 관리는 분기별 보고되고 있으며, 추진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 3-4]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출처>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제3절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1.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고양시에서는 현재 총 6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중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년의 기본권과 취·창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타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편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와 같이 청년 농업인이나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비교적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례이다.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와 같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례를 제외한 특징적인 조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분야인 주거와 관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주거 기본 조례가 서울시의 단위에서 제정되었다. 청년정책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취업 분야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공단지역인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로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금천구에서는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옛 상업단지에서 창업하는 청년이 많은 성동구에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남구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천구에서는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통하여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청년을 위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성동구)가 제정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가 있다.

청년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하였으며, 구(區) 단위에서는 강서구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와 노원구의 청년 구정 참여 활동 지원 조례가 눈에 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용인시 그리고 청년정책이 앞서고 있는 서울시에 비하여 고양시가 특징적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제4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청취다방, 28청춘창업소)

1. 청취다방

청취다방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²⁵⁾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년 지원공간이다. 해당 공간명은 ‘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을 줄인 것으로, 청취다방은 고양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화정버스터미널 2층 중 약 138평의 공간을 임차해 2019년 9월 개관하여 고양시 청년담당관(청년지원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연이나 세미나 등 교육 관련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예약자에게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소도구 등을 마련하여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유주방이 있어 원데이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또한 청년 지원공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취·창업 특강과 컨설팅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5) 제22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년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3-5] 청취다방 허브 공간시설



회의실



전시공간



신체활동공간

〈출처〉 고양시 청취다방 웹사이트, <https://goyangjobcafe.kr/> (접속일 2022.11.13.)

2022년 청취다방 이용자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 개설이나 강화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어학 능력과 컴퓨터 능력 강화와 관련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취다방 이용 청년들은 문화예술, 신체활동, 취업 프로그램 강화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동네 청취다방’이라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스터디카페 공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1년 기준 고양시 내에 총 15개소(덕양구 6개소, 일산동구 5개소, 일산서구 4개소)의 민간 카페를 발굴, 섭외하였다. 청년들은 예약을 통해 카페 공간을 주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년들은 원하는 지역과 공간에서 자기개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에 더하여 청취다방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해당 공간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고양시 내 청년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취다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간 운영 주체가 민간 위탁에서 시청 직영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니즈와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타 기관이나 조직과 협업이 잘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인력은

행정직 일반 공무원 1명과 직업 상담 전문의 임기제 공무원 1명, 기간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제 공무원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투입되는 업무는 인터넷 예약 관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취다방은 그동안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예약에 집중하면서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려 왔다. 하지만 예약 관련 업무의 과부하를 해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예약 시스템의 단순화와 효율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규모에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간, 특히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개설하여 이용자의 현실적인 편의와 니즈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보충되거나 인력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취다방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청년 활동의 다양한 분야(문화예술, 취업, 신체 활동 등) 니즈와 다양한 시간대(평일 저녁, 주말 등)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선택과 집중 또는 인력과 예산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청취다방은 문화예술, 신체활동, 취업 중 어떤 전문 분야를 선택할 것인지, 그 외의 분야는 다른 공간이나 기관으로 이관 하거나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택한 전문 분야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보충도 필요해 보인다. 먼저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대책, 즉 내일꿈제작소의 건립과 더불어 고양시 내 청년 지원공간의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편리성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인 만큼 특히 청취공간이 위치한 오래된 터미널 건물의 외관 자체를 정비하여 일반인도 청취다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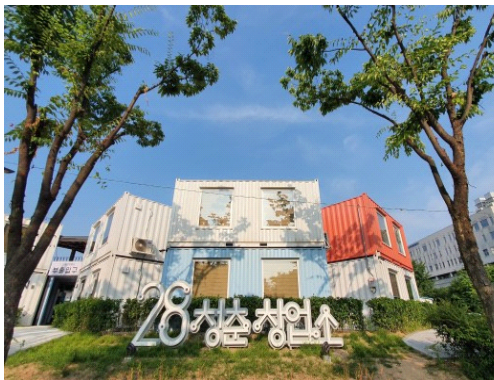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청취다방은 해당 공간의 역할과 지속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취·창업과 취미생활 등 청년 관련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인원이 제한된 운영 인력의 현실을 고려하면, 설문조사에 반영된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양시의 타 청년 지원공간과 역할, 지역을 분담하고 소프트웨어의 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 또한 임대계약과 타 청년 지원공간 간 관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28청춘창업소

28청춘창업소는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 청년 창업가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이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공간을 고양산업진흥원에서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간은 42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등 창업 보육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 개방형 정보교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온방과 냉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시민이 이 공간에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기에는 외관 매력도 또한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28청춘창업소 공간시설



28청춘창업소



메이커 스페이스 시제품 촬영실(스튜디오)

<출처> 28청춘창업소 메이커스페이스 웹사이트, <https://28makerspace.modoo.at/> (접속일: 2022.11.13.)

지원 내용은 만 18~39세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자금 지원, 기업 교육, 판로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보물이나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멘토링과 데모 데이 등

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에 입주 청년 창업인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시제품 촬영실,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 창업인의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간 확보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사업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시제품 제작 제반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아이디어 기반의 창의 융합형 메이커 육성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고양 혁신 창업 챌린지’라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발굴부터 육성, 독립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창업 캠프를 통해 집중 컨설팅으로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창업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과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고양시와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청춘창업소는 2019년 11월 21일 개소 이후 50개의 입주사와 졸업사, 15개의 신규 창업사를 배출하였으며, 342명의 청년 창업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으며, 113명에게 고용 기회가 주어졌다. 총 52건 14억 4,3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2020~2022년 상반기 총 62억 7,5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입주사들이 112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청년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과정을 28청춘창업소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28청춘사업소 건물의 열악함과 입주기간 3년 제한의 한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고양시의 청취다방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간 중복되어 나누어야 하거나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역할과 과정은 논의와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하여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장

고양시 청년 생활 실태 및 청년 지원공간 이용 방안 조사

제1절 고양시 청년 인구사회학적 특징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정책 제언

제절 고양시 청년 인구사회학적 특징²⁶⁾

고양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고양시 청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연령 기준이 있다. 일상적 대화나 언론 등에서 ‘청년’을 지칭할 때는 주로 ‘2030세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을 의미한다. 청년 연령의 제도적 정의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제정되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한다. 고양시의 청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고양시의 청년으로 규정하다 2019년 9월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개정했다.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기존 조례보다 약 5년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의 청년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와 같은 연령 상한 기준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제도적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 혹은 직후의 연령(만 18세 혹은 19세)부터’라는 연령 하한 기준은 대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상한 기준은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후부터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따른다.

1. 고양시 전체 인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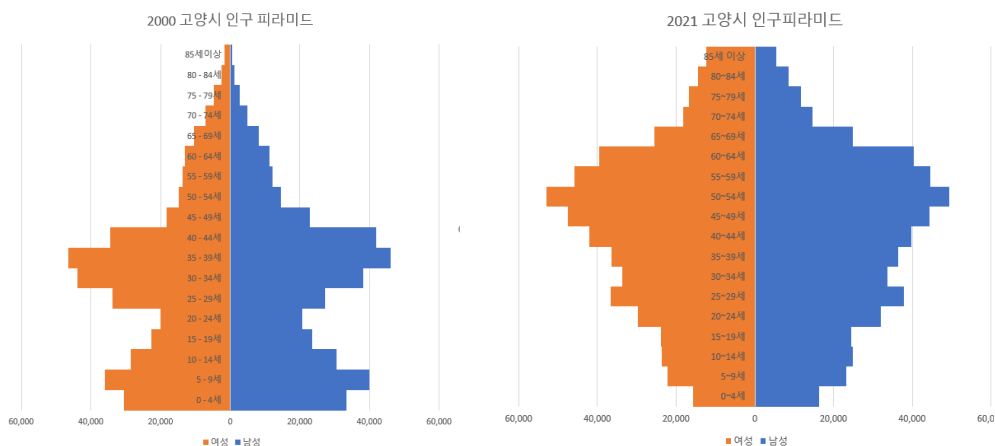
고양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고양시 전체 인구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고양시의 전체 인구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고양시 인구는 약 107만 8,189명이다. 고양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약 20만 명에도 못 미쳤지만(당시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고양군), 1992년 고양시에 일산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시로 승격하며 1990년대 중후

²⁶⁾ 본 절은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반 급격한 인구 성장을 경험했다. 1995년 약 56만 명으로 증가한 고양시의 인구는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약 103만 명). 이후 고양시의 인구 증가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신희, 2021). 고양시의 인구 규모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이어 용인시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이고,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 조건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합하여 2022년 특례시로 출범했다(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

이처럼 고양시는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구가 성장하여 현재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가 됐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간 고양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고양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양시의 인구피라미드는 1990년대 출생률이 높은 인구 구조인 ‘피라미드형’ 혹은 ‘종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2020년에는 출생률이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했다. 이후 고양시의 인구피라미드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2000년과 2021년 고양시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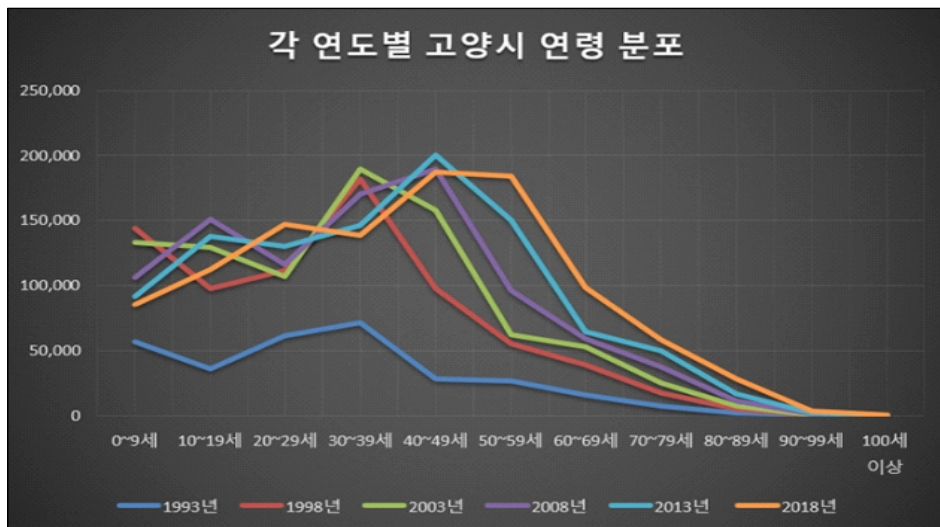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통해 저자 제작.

2. 고양시 청년 인구의 특징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고양시에서 청년은 전체의 약 27.2%(20대 약 14%, 30대 약 13.2%)를 차지한다(고양시, 2022). 고양시는 50대의 인구가 약 18%로 가장 많고 40대가 전체의 약 16.9%로 그 뒤를 잇는다. 50대와 40대의 인구 비율에 이어 고양시 청년 인구인 20대와 30대의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약 5년 전인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고양시 청년 인구 비율은 약 27.8%로, 2020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비슷한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 약 5년 동안 고양시의 인구는 약 5만 명 증가하고 전체적인 인구의 연령은 50대 후반~60대 초반의 인구 비율이 크게 높아지며 고령화됐다. 2020년 한국 전체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약 26%이고 서울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약 30.4%인 점과 비교하면 고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인구 비율보다는 약간 높고 서울 인구 비율보다는 낮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²⁷⁾.

[그림 4-2] 연도별 고양시 연령 분포



〈출처〉 고양일보, <http://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0> (접속일: 2022.10.18)

27) 한국 전체와 서울의 인구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름.

이처럼 고양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약 27.2%)하는 고양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고양시 청년은 1990년대 중·후반 고양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당시 유아기 혹은 유년기의 주요 연령 세대로 자리 잡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양시의 인구는 19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다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성장세가 완만해지며 고양시의 주요 인구 구성이 형성된다.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3년에는 30대 인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주요 연령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고양시의 전반적인 인구 구성이 자리를 잡은 1998년에는 0~9세와 30대의 인구가 고양시의 주요 세대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0대와 0~9세는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율이며, 두 세대는 앞뒤 다른 세대에 비해 인구 비율이 높아 꺾은선그래프의 ‘꼭짓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청년세대인 1990년대 0~9세 인구는 일산신도시 입주 시기인 5년 동안(1993년에서 1998년) 급성장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고양시로 이주했다기보다 가족 이주를 통해 고양시로 전입했거나 고양시에서 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고양시의 주요 세대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1998년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라 고양시의 주요 세대가 된 30대 부모, 0~9세 자녀 조합의 가구는 10년 후인 2008년에는 각각 40대 부모, 10대 자녀, 20년 후인 2018년에는 각각 50대 부모, 20대 자녀로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유지된다. 1998년에 비해 10년(2008년), 20년 후(2018년)에 주요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과 다른 세대의 비율 간 차이가 좁혀지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두 연령의 주요 세대는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산신도시 개발로 고양시로 이주한 주요 세대가 된 30대 부모와 0~9세 자녀는 일산신도시와 고양시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유지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유년기와 청장년기였던 고양시의 주요 세대는 현재는 청년기와 중년기의 연령으로 변화했다. 이를 자녀 세대에 집중하여 설명하면, 일산신도시 개발로 1990년대 중·후반 고양시로 이

주한 주요 가구에서 출생하거나 유년기의 연령에 이주하여 청년의 연령까지 고양시에서 거주했다고 잠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전체 인구 규모에서 전입·전출 비중이 높다.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항목의 2010~2019년의 국내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 동안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약 89만 4,000명이며, 전출 인구는 약 80만 명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고양시 전입·전출 인구는 큰 차이 없이 균등한 편이며 순이동은 꾸준히 양(+)의 값을 가지며 고양시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다. 2010년 고양시의 인구 규모가 약 95만 명, 2019년에는 약 106만 명으로 100만 전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 고양시 전입·전출 규모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평균으로 서술하면 약 100만 명의 고양시의 인구 중 8% 정도가 고양시에서 전출하고 약 9%가 고양시로 전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양시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기존 인원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진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10년간 청년 세대의 고양시 전입 규모는 전체의 약 47.69%(20대 19.53%, 30대 28.16%), 전출 규모는 전체의 약 45.37%(20대 18.29%, 30대 27.08%)로 전입 규모가 전출 규모보다 약간 더 높은 전체적인 추세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인구 비율(2020년 20대와 30대 각각 14%, 13.2%)에 비해 고양시 청년이 고양시에서 활발하게 전입·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고양시 연도별 전입전출 현황

(단위: 가구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715 (1.20%)	1,555 (2.61%)	11,953 (20.04%)	18,591 (31.16%)	11,688 (19.59%)	6,737 (11.29%)	4,254 (7.13%)	2,897 (4.86%)	1,264 (2.12%)	59,654 (100%)
2011	639 (1.10%)	1,470 (2.53%)	11,041 (19.04%)	17,723 (30.56%)	11,686 (20.15%)	6,977 (12.03%)	4,217 (7.27%)	2,882 (4.97%)	1,363 (2.35%)	57,998 (100%)
2012	575 (1.06%)	1,413 (2.60%)	10,303 (18.94%)	16,234 (29.84%)	10,863 (19.97%)	7,039 (12.94%)	3,808 (7.0%)	2,739 (5.03%)	1,432 (2.63%)	54,406 (100%)
2013	501 (0.90%)	1,302 (2.33%)	9,655 (17.28%)	16,661 (29.81%)	11,264 (20.16%)	7,496 (13.41%)	4,302 (7.70%)	3,132 (5.60%)	1,571 (2.81%)	55,884 (100%)
2014	503 (0.91%)	1,253 (2.27%)	9,691 (17.53%)	16,133 (29.18%)	11,230 (20.31%)	7,561 (13.68%)	4,271 (7.72%)	3,070 (5.55%)	1,577 (2.85%)	55,289 (100%)
2015	478 (0.81%)	1,320 (2.24%)	10,513 (17.88%)	15,961 (27.14%)	11,618 (19.75%)	8,537 (14.52%)	5,051 (8.59%)	3,418 (5.81%)	1,915 (3.26%)	58,811 (100%)
2016	440 (0.80%)	1,166 (2.13%)	10,876 (19.83%)	14,552 (26.54%)	10,381 (18.93%)	7,841 (14.30%)	4,722 (8.61%)	3,073 (5.60%)	1,784 (3.25%)	54,835 (100%)
2017	407 (0.81%)	1,142 (2.28%)	10,811 (21.56%)	12,911 (25.75%)	9,409 (18.76%)	6,945 (13.85%)	4,191 (8.36%)	2,603 (5.19%)	1,729 (3.45%)	50,148 (100%)
2018	378 (0.73%)	1,121 (2.16%)	11,059 (21.28%)	13,156 (25.31%)	9,527 (18.33%)	7,353 (14.15%)	4,619 (8.89%)	2,844 (5.47%)	1,915 (3.68%)	51,972 (100%)
2019	352 (0.59%)	1,281 (2.14%)	13,219 (22.10%)	15,443 (25.81%)	10,639 (17.78%)	8,522 (14.25%)	5,341 (8.93%)	2,981 (4.98%)	2,044 (3.42%)	59,822 (100%)
계	4,988 (0.89%)	13,023 (2.33%)	109,121 (19.53%)	157,365 (28.16%)	108,305 (19.38%)	75,008 (13.42%)	44,776 (8.01%)	29,639 (5.30%)	16,594 (2.97%)	558,8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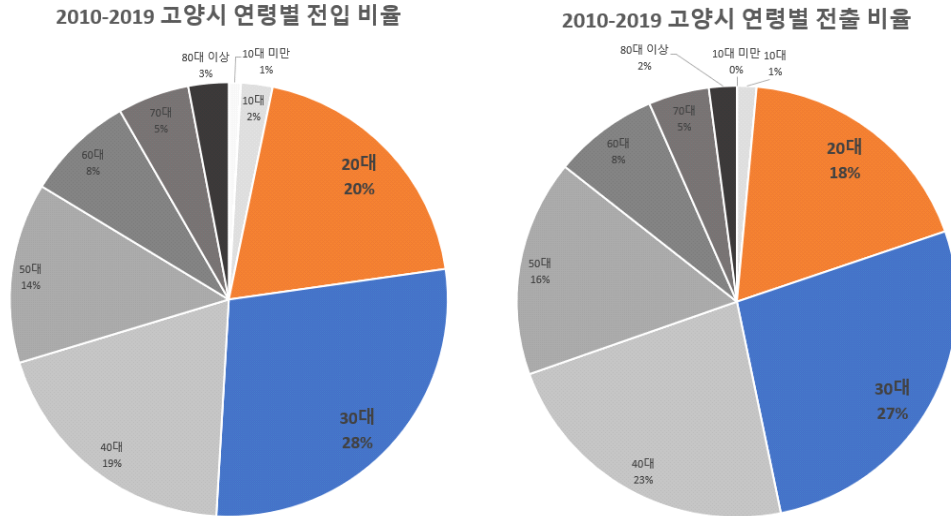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2010	703 (1.21%)	1,628 (2.80%)	10,405 (17.91%)	16,736 (28.80%)	12,807 (22.04%)	7,506 (12.92%)	4,197 (7.22%)	2,855 (4.91%)	1,270 (2.19%)	58,107 (100%)
2011	538 (0.99%)	1,637 (3.02%)	9,586 (17.68%)	15,657 (28.87%)	11,774 (21.71%)	7,288 (13.44%)	3,865 (7.13%)	2,639 (4.87%)	1,249 (2.30%)	54,233 (100%)
2012	567 (1.10%)	1,596 (3.10%)	9,167 (17.83%)	14,649 (28.49%)	11,035 (21.46%)	7,252 (14.10%)	3,539 (6.88%)	2,437 (4.74%)	1,176 (2.29%)	51,418 (100%)
2013	462 (0.96%)	1,412 (2.95%)	8,561 (17.86%)	13,356 (27.86%)	10,219 (21.32%)	6,795 (14.18%)	3,434 (7.16%)	2,509 (5.23%)	1,184 (2.47%)	47,932 (100%)
2014	435 (0.88%)	1,418 (2.88%)	9,140 (18.57%)	13,287 (26.99%)	10,494 (21.32%)	7,254 (14.74%)	3,578 (7.27%)	2,361 (4.80%)	1,261 (2.56%)	49,228 (100%)
2015	424 (0.85%)	1,366 (2.75%)	9,516 (19.15%)	12,684 (25.52%)	10,407 (20.94%)	7,712 (15.52%)	3,872 (7.79%)	2,376 (4.78%)	1,336 (2.69%)	49,693 (100%)
2016	398 (0.81%)	1,375 (2.78%)	9,931 (20.11%)	12,554 (25.42%)	9,872 (19.99%)	7,514 (15.22%)	3,996 (8.09%)	2,400 (4.86%)	1,344 (2.72%)	49,384 (100%)
2017	400 (0.81%)	1,330 (2.68%)	11,177 (22.49%)	12,474 (25.11%)	9,269 (18.65%)	7,399 (14.89%)	3,981 (8.01%)	2,231 (4.49%)	1,426 (2.87%)	49,687 (100%)
2018	356 (0.69%)	1,380 (2.67%)	12,330 (23.88%)	12,628 (24.46%)	9,324 (18.06%)	7,612 (14.74%)	4,329 (8.39%)	2,193 (4.25%)	1,475 (2.86%)	51,627 (100%)
2019	332 (0.67%)	1,471 (2.96%)	12,982 (26.17%)	11,458 (23.09%)	8,571 (17.28%)	7,162 (14.44%)	4,182 (8.43%)	2,054 (4.14%)	1,402 (2.83%)	49,614 (100%)
계	4,615 (0.90%)	14,613 (2.86%)	102,795 (20.12%)	135,483 (26.52%)	103,772 (20.31%)	73,494 (14.38%)	38,973 (7.63%)	24,055 (4.71%)	13,123 (2.57%)	510,923 (100%)

주) 청년 세대 강조는 저자 표시

<출처>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석호원·김소담, 2021)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그림 4-3] 고양시 연령별 전입·전출 비율

(단위: 가구 건, %)



〈출처〉 석호원·김소담(2021),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를 활용하여 제작

이들 통계에 따르면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의 인구 변화는 매우 활발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이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고양시의 주요 세대 중 자녀 세대(현재 청년 세대)가 출생 혹은 유년기에 고양시로 이주 이후 고양시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요 세대로 존재한다는 이전의 주장과 상충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고양시의 인구 구성 흐름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고양시에서 출생하거나 유년기에 고양시로 이주한 이들이 현재까지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계속 거주하지만, 고양시 청년의 전입·전출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주요 연령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 인구 구성이 활발하게 변화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고양시에서 1998년부터 약 20년 동안의 주요 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던 인구 구성은 동일한 인원이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며 형성한 결과라기보다 활발한 전입·전출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인구 통계 자료를 통해 상충되는 고양시 인구 구성의 흐름(역사)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고양시 청년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기간과 관련한 자료는 고양시 청년 중 고양시에 서 성장한 청년과 비교적 최근에 전입한 청년 간 비율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고양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중 약 57.5%는 20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했다. 또한 20대 청년의 전체의 약 13.6%는 고양시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거주했다. 따라서 2021년 9월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중 약 70.1%는 전체 생애 중 최소 절반 이상(20대 최고 연령 만 29세, 15년 이상 고양시 거주)을 고양시에서 거주했다. 같은 자료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은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약 40.2%였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 비율은 5.9%였다. 따라서 고양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30대 청년은 전체의 약 46.1%이다. 15년 이상 고양시에서 거주한 20대 청년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0대 청년 중 고양시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비율은 전체의 약 10.7%이다. 즉, 고양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30대 청년은 전체의 약 56.8%이다. 이처럼 30대 고양시 청년들은 20대에 비해 고양시 평균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이라는 상당 기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의 고양시 거주 기간에 비해 30대 청년의 고양시 거주 기간이 큰 차이로 감소한다. 이를 통해 20대까지 고양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청년 중 다수는 30대에 고양시에서 전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인구 통계 자료인 2020 조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20대의 평균 거주 기간은 14.3년, 30대의 평균 거주 기간은 11.8년으로, 고양시 청년들은 생애 중 상당 기간을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30대보다는 20대가 더 긴 기간 고양시에 거주했다는 앞서 기술한 조사 결과와 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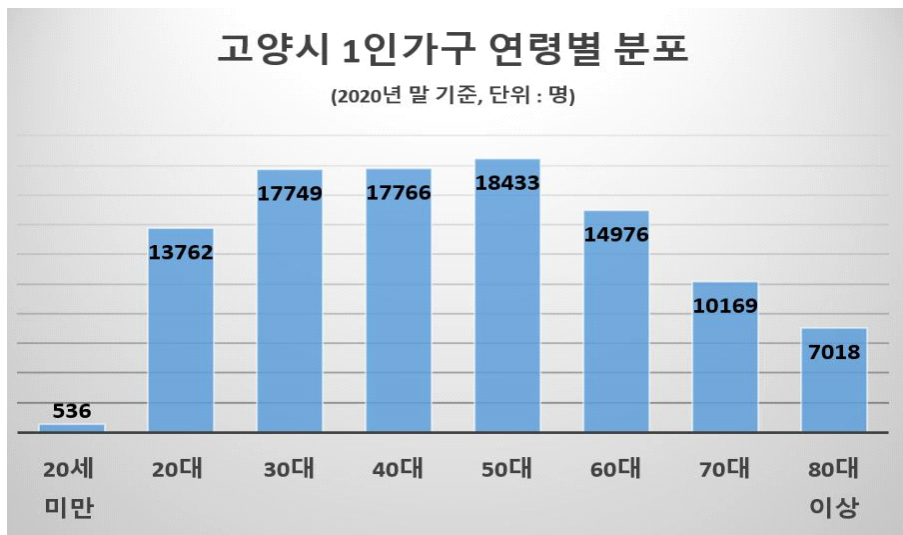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고양시 청년의 고양시 거주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양 시민 전체 연령과 거주 기간을 비교할 수 있다. 고양 시민 전체 연령의 약 45.6%는 고양시에 20년 이상 거주했으며, 약 16%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연령 고양시 거주 기간 평균보다 고양시 20대 청년은 고양시에 더 오랜 기간 거주했으며 30대 청년은 전체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고양시에 거주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청년 이상 연령과 비교할 때 같은 기간이 생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20대와 50대가 각각 고양시에서 20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은 20대에게 이 기간은 전체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이지만, 50대에게는 전체 생애 중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평균을 큰 차이로 상회하는 20대의 고양시 거주 기간과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30대의 고양시 거주 기간은 전체 생애 중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 비중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매우 긴 편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고양시 청년의 거주 형태와 기간을 드러내는 다른 통계자료로 고양시 전입·전출 가구의 인원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고양시의 전입, 전출 규모를 파악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입은 약 55만 9,000가구이며, 전출은 약 51만 가구이다. 전입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21%이고, 전출 인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2%로 약 70% 내외로 비슷하다. 이를 통해 고양시에 전입하는 대다수의 가구가 1인가구이며, 비슷한 비율만큼의 전입 가구도 1인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양시 1인가구의 전입, 전출 비율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고양시가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1인가구의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고양시의 2015년 고양시의 1인가구 비율은 약 19%에서 2020년 22.4%로 증가했다(2021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그러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의 전국 평균은 약 33.4%이며, 서울은 36.8%, 경기도는 29.2%로, 전국이나 주요 지역의 평균보다 고양시의 1인가구 비율이 낮다. 따라서 고양시에서 1인가구는 활발히 전입하며 고양시의 1인가구 비율을 증가시켰지만, 이들이 고양시에 오랜 기간 정착한다기보다 다시 고양시에서 전출하며 고양시의 1인가구 비율은 전국이나 주요 도시의 1인가구 비율 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분석을 앞서 고양시 주요 세대가 부모와 자녀로 연결된 2인 이상 가구로 지속된다는 설명과 연결하면, 고양시의 높은 전입, 전출 규모는 고양시의 주요 세대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고양시의 주요 세대인 2인 이상 가구는 고양시에서 큰 규모로 전출하지 않으며, 새로 전입한 1인가구는 고양시에 정착하며 새로운 주요 세대로 고양시에 남기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고양시에서 전출한다. 또한 고양시에서 청년 인구의 비율은 약 27.2%이지만, 2022년 고양시 1인가구 중 청년의 비율은 약 32%이다([그림 5] 참조). 이를 통해 최근 1인가구의 청년 세대

가 기존 인구 구성 비율보다 더 많이 고양시로 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세대 중에서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상당한 차이로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다.

[그림 4-4] 고양시 1인가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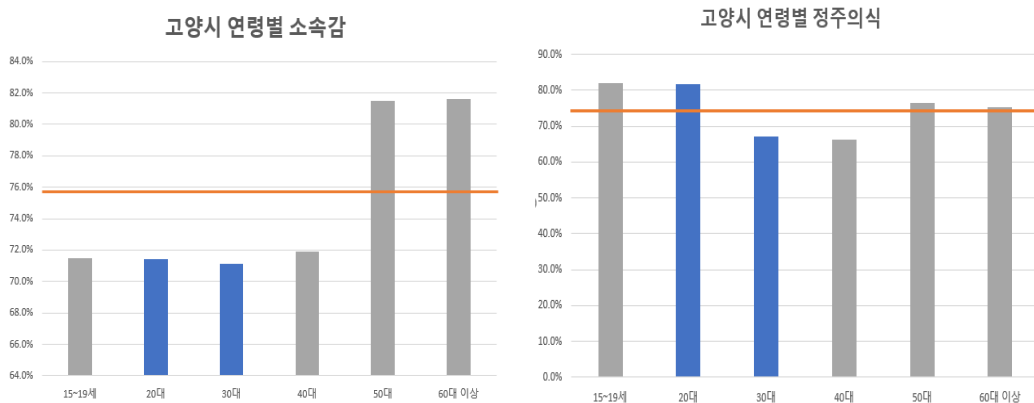
〈출처〉 고양신문(2021.11.09.) ‘경기도 1인가구 월평균 소득 289만원 “생활비 161만 원”’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99>, (접속일: 2022.10.18)

전술한 바와 같이 고양시 청년들의 긴 평균 거주 기간과 1인가구 위주의 전입·전출 통계는 앞서 설명한 잠정적 가정을 뒷받침한다. 1990년대 후반 고양시의 주요 세대는 큰 규모의 전입·전출 없이 현재까지 오랜 기간 가족 형태(2인 이상 가구)로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주장과 상충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고양시 청년의 활발한 전입·전출 통계에서 집계된 청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지된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서 청년이 아닌, 주로 1인가구로 고양시에 전입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고양시에 거주하다 다시 고양시에서 전출하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시에서 주요 세대로 거주한 현재의 청년 세대는 고양시 거주 기간이 긴 만큼 고양시 애착도 높은 편이다.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고양시 청년들이 고양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양시 소속감과 정주의

식(고향이라 느끼는 감정) 등이 있다. 먼저 고양시 20대와 30대의 고양시 소속감은 각각 71.4%, 71.1%로 높다. 이는 전체 연령 평균인 75.5%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의 정주 의식은 고양시를 ‘고향’으로 여기는지 여부를 통해 조사했는데, 고양시 20대 청년 중 약 81.6%, 30대 청년 중 약 67.2%가 고양시를 고향으로 여긴다고 답변했다. 이는 고양시가 ‘태어나서 고향 같다’는 답변과 ‘태어나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라는 답변을 합한 수치이다. 고양시 전체 연령의 평균은 약 74.8%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양시 20대 청년의 고양시 정주의식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30대의 정주 의식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은 편이지만 20대의 정주 의식과 전체 연령 정주 의식 평균보다는 낮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고양시의 20대 청년은 고양시 애착이 매우 높고 30대 청년은 20대만큼은 아니지만 애착이 높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대와 30대의 고양시 애착의 차이는 고양시 거주 기간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고양시 청년들의 고양시 거주 기간이 도시 공간 애착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5] 고양시 연령별 도시 공간 애착도(소속감, 정주의식)



주) 주황색 선은 전체 연령 평균값.

〈출처〉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고양시 2022)를 참고하여 제작.

[표 4-2] 고양시 청년 연령별 구분(상대적 서술)

구분	20대	30대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기간 고양시 거주 • 높은 고양시 정주 의식 • 2인 이상 가구(가족 형태)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기간 고양시 거주 • 낮은 고양시 정주 의식 • 잦은 고양시 전입전출 • 직업 요인으로 고양시 전입전출 • 1인가구 형태 거주

〈출처〉 저자 작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양시 청년은 비록 20대와 30대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고양시에는 오랜 기간 고양시의 주요 세대로 거주했고 고양시에 대한 장소 애착이 높다. 이를 통해 고양시에는 크게 두 범주의 청년이 거주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일산신도시 입주 시기(1990년대 중 후반)에 고양시로 전입하거나 고양시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청년이고, 이들이 고양시 청년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청년은 주로 고양시에서 평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20대이며, 가족과 함께 고양시에서 거주한다. 두 번째 범주는 고양시로 전입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청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이 범주에는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포함되며 1인가구 비율이 높다. 고양시 거주 청년의 두 범주 중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범주의 고양시 청년(고양시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 2인 가구 이상의 가족 단위로 거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생애에서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 비율이 높다. 긴 거주 기간은 고양시 청년이 고양시 애착(소속감, 정주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고양시 청년 중 20대가 30대에 비해 고양시에 더 오랜 기간 거주하고 애착도 높는데, 30대 청년들이 20대 청년에 비해 거주 기간이 짧고 애착이 낮은 주요 원인은 직업이다. 30대의 연령은 일반적인 생애 주기에서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연령이다.

[표 4-3]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고양시 청년 범주화

구분	신도시 청년(첫 번째 범주)	신규 입주 청년(두 번째 범주)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고양시에서 출생 또는 유년기에 가족 단위로 고양시 전입 • 상대적으로 긴 기간 고양시 거주 • 가족 단위 거주(2인 이상 가구) • 고양시 청년 인구의 다수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2000년대 이후) 고양시 전입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고양시 거주 • 1인가구 위주 • 첫 번째 범주의 고양시 청년들보다 적인 인원

〈출처〉 저자 작성.

앞서 제시한 고양시 청년의 거주 기간 관련 자료에서 20대와 30대의 거주 기간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연령별 전출 원인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대에 높았던 평균 거주 기간이 30대에 와서 크게 감소한다면 30대의 전출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고양시 인구의 이동 요인 분석(석호원·김소담, 2021)에 따르면 2019년 30대의 주된 전출 요인은 ‘직업’과 ‘가족’이었다(각각 전체의 약 35.4%, 33.2%). 고양시 30대 청년의 전출 요인에서 가족 요인에는 부모의 전출에 따른 전출이나 배우자의 전출에 따른 전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0대 미만 연령에 비해 30대는 결혼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가족 요인에 따른 전출 중 부모의 전출에 따른 전출보다 배우자의 전출에 따른 전출의 비율이 30대 이하 연령 세대에 비해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 직업에 따라 전출할 때 이를 따라 ‘가족 전출’하는 경우 이 역시도 직업이 전출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실제 전출 요인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통해 20대까지 고양시에서 거주하던 청년이 30대에 직업과 가족을 주된 사유로 고양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는데, 그중 직업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양시의 연령별 전출 규모를 살펴보면 20대 전출은 전체의 약 18.29%인 데 비해 30대의 전출은 전체의 약 27.08%로 큰 차이를 보인다. 30대의 전출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40대의 전출 비율 22.75%에 비해서도 꽤 차이가 있다. 앞서 분석한 내용과 종합하여 이해하면, 20대까지는 고양시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장소 애착)을 갖고 오랜 기간 고양시에 거주하지

만, 30대가 되면 주로 직업 요인에 따라 고양시를 떠난다. 이 같은 해석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30대 역시 직업 요인에 따라 고양시 거주를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청년 세대인 20대는 가까운 미래에 많은 수가 고양시를 떠날 것이다. 고양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보면 고양시 청년은 고양시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있지만, 현재 고양시는 ‘청년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그 이유를 청년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도시가 된 고양시의 역사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고양시 청년 인구사회학적 특징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국에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²⁸⁾. 이 계획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90만 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고양시 일산을 포함한 다섯 지역(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 개발에 30만 호 공급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노태우정부는 1989년 중동, 평촌, 산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연이어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5대 신도시 중 일산과 분당은 여러 기준에서 다른 신도시와 차이를 보였다(이현주 외, 2012). 먼저 다른 신도시가 기존 시가지의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높은 밀도로 주택(아파트)을 건설한 데 비해 일산과 분당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광활한 허허벌판에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 배치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공원 등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주택 공급 계획도 일산과 분당이 각각 6만 9,000호, 9만 7,500호로 각 4만 2,500호였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산과 분당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인식되며 도시 발전 성과를 평가할 때 자주 비교된다(민보경·박민진,

28) 서울경제(2021.10.26.) “‘집통령’ 꿈꾼 노태우...분당·일산 만들고 주택 200만호 공급,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4B9I61>(검색일: 2022.6.10.)

2018).

그 당시 7개 읍으로 구성된 고양군은 27개 동의 고양시로 승격했다. 이후 몇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친 고양시는 1996년 덕양구와 일산구로 나뉘고, 2005년 일산구는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로 다시 나뉘며 총 3개 구(區)를 보유한 시(市)가 되었다. 일산신도시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신도시 개발 계획은 발표 직후 신속하게 실행되면서 1991년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조기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는 1992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일산신도시는 발전된 기술을 도시, 주택(아파트) 건설에 적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빠른 건설 기간으로 부실 공사 논란도 있었지만, 신도시의 인기는 계속 이어졌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중후반에 일산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일산신도시 개발과 입주 초기에 일산신도시로 이주한 인구의 특성을 아래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일산신도시 개발로 고양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인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15년 동안 인구는 약 3.7배 증가했지만, 가구 수는 총 6만 5,000가구에서 약 32만 8,000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 비해 가구의 증가폭이 훨씬 커서 평균 가구원 수가 약 3.7명에서 약 2.7명으로 크게 낮아졌다(임동일, 2008). 고양시의 평균 가구원 수는 약 15년 만에 빠른 속도로 농촌 수준에서 도시 수준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평균 가구원 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 일산신도시 개발 직후 고양시로 전입한 가구는 가구원 수가 적은 1인가구나 핵가족 형태의 신혼 가구가 많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공원이나 학교, 병원 등 근린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 가구에 인기가 높았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고양시 연령대에서 30대 인구와 이들의 자녀로 예상할 수 있는 0~9세의 인구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30대 부모와 0~9세의 유년기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일산으로 대거 이주했다. 일산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입주 초기인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신도시 중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녹지율이 가장 높으며 용적률은 가장 낮다. 이는 ‘예술,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라는 일산신도시 개발 목적에 따라 형성된 도시 특성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 특성은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여겨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 초기 일산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시 공간과 인구의 주요 특성을 서술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일산신도시는 첫 입주 이래 약 30년이 지났다. 인구 성장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일산신도시와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발전된 도시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30년이 지난 일산신도시는 여러 자기 도시 문제가 지적되며 ‘위기의 도시’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산신도시의 현재를 도시 위기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교통과 산업, 부동산 가격 등이다.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일산신도시는 서울과 연결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는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된 도시였고, 주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산신도시로 주거지만 옮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와 고양시는 서울로 이동(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도로 교통에서는 자유로와 통일로가 서울로 향하는 주요 도로이지만 잦은 정체와 낮은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 등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크게 겪는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철도가 있는데,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이지만, 다른 노선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고 낮은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 서울 주요 지역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인 탓에 잦은 정차 등으로 서울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

또한 일산신도시와 고양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주요 도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른바 고양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는 일자리의 전체적인 규모가 부족하다기보다 첨단산업 등 ‘선호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받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2021년 고양시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에 위치한 전체 6만 9,687개 사업체 중 종사자 규모가 50명 이상은 1% 미만(658개)이며, 4명 미만이 전체의 약 78%(5만 4,198개 업체)를 차지한다²⁹⁾.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처럼 고양시 사업체의 작은 규모와 업종은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이나 선호하는 산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체 특성이다. 고양시에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고양시 취업자의 근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²⁹⁾ 2021년 고양시 기업체 현황, 고양시 행정정보공개, http://www.goyang.go.kr/www/public/ntt/BD_selectPublicNtt.do?publicNttSn=272602&q_publicJobSn=(검색일: 2022.8.3.)

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별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고양시의 취업자 수는 약 55만 5,000명이지만, 이들 중 고양시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약 41만 8,000명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에는 고양시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양시에는 최소 약 13만 7,000명(55만 5,000명에서 41만 8,000명을 뺀 수치) 이상이 고양시 외 지역에서 근무한다³⁰⁾. 즉, 고양시 전체 취업자의 최소 약 24.7%는 고양시 외 지역에서 근무하며 이를 위해 이동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역 거주 취업자 수와 지역 근무 취업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를 통해 고양시에는 고양시 거주자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산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과 교통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주요 도시 문제로 제기됐고 이는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정책으로 집중 공약한 분야이기도 하다³¹⁾. 일산신도시의 위기는 신도시 개발 이후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도시 위기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도시 가치를 평가하는 대중적인 평가 지표인 아파트 가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산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서울 평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림 4-6] 참조).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고양시와 일산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이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 느린 속도로 상승하며 분당신도시,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과 격차가 커진다.

3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별 주요고용지표, 통계청

31) 이데일리(2022.5.23.) “고양특례시 표심, 경제·교통 ‘자족도시’ 완성 공약에 촉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9846632331872&mediaCodeNo=257&OutLnkChk=Y>(접속일: 2022.6.12.)

[그림 4-6] 1기 신도시 및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2000~2011년)

5개 신도시 아파트 가격 추이 (단위: 만원/3.3㎡)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고양	457	753	1041	970
일산	472	830	1110	1025
분당	637	1620	1674	1695
평촌	502	980	1256	1231
산본	463	775	1079	1074
중동	424	761	1088	1058
강남3구	928	2229	2616	2774
서울 (강남3구 제외)	583	1022	1451	1468

자료 : REPS 2.0

〈출처〉 고양신문(2021.09.06.)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집값 ‘가족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8>, (접속일: 2022.10.1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는 비슷한 규모로 개발된 같은 1기 신도시 분당과 자주 비교된다. [그림 4-6]에서 아파트 가격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분당신도시는 일산신도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일산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간 차이는 커졌다. 반면에 일산신도시와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은 2000년대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상승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따라서 도시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아파트 가격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비슷한 목적과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의 대표 도시인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분당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서울의 주요 지역과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산업 단지 등으로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했다. 두 도시의 상반된 모습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³²⁾. 이처럼 일산신도시의 도시 문제로 지적된 도시 특성이 분당신도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두 도시의 차이와 잦은 묘사는 일산신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고착화되었다.

이와 같은 고양시와 일산신도시의 도시 문제는 앞서 구분한 두 범주의 고양시 청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먼저 ‘신도시 세대’로 고양시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가족 단위로 거주하다 30대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범주의 청년은 고양시의 도시 문제가 지속된다면 30대에 다수가 고양시를 떠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고양시의 도시 문제가 30대 고양시 청년이 고양시를 떠나는 주된 요인인 직업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로 1인가구 형태로 고양시로 전입하여 단기간 거주하는 범주의 고양시 청년은 고양시의 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경향과 같이 고양시에 오랜 기간 정착하지 못하고 단기간 거주 이후 다시 진출할 것이다. 혹은 고양시의 도시 문제가 심화될 경우 단기간으로도 고양시에 전입, 거주하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두 범주의 청년들은 이처럼 ‘예술,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라는 고양시의 도시 특성에 만족하며 거주할 수도 있지만, 고양시가 현실적인 문제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고양시를 떠나거나 도시 거주에 불만족인 감정을 지니고 거주한다. 이와 같이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이는 고양시 청년은 고양시의 도시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잃어버리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있다.

32) 동아일보(2020.11.29.), “동시 탄생한 분당과 일산, 집값 격차 커지는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9/104195037/1\(접속일: 2022.6.12.\)](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9/104195037/1(접속일: 2022.6.12.))

제2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고양시 거주 1인가구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여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사 시점 현재 고양시에 거주 중인 1인가구와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거주, 청년 지원공간과 정책, 취업과 창업, 건강과 삶에 관한 문항을 확인하고자 했다. 응답을 통해서 고양시 거주 1인가구와 청년 창업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시정에 정책 제안 과정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는 고양시 1인가구와 청년 창업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母法)이 제정되기 전 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청년 조례가 대체적으로 청년의 상한선을 만 39세를 기준 삼고 있고³³⁾, 고양시는 만 18세부터 3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제3조)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만 19~39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본 크기는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300명으로 했다. 다만 대상자의 선별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層化抽出)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약 1주일간 실사 분석을 진행하고, 약 1주일간 분석을 진행했다.

³³⁾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만 19~34세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를 따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3. 조사 방법

응답자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게 하거나 기술하게 하는 자기 기입식 (self enumeration method) 방법을 활용했다. 해당 응답을 통해서 청년 관련 통계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고양시 청년정책 당사자의 인식과 정책의 현황,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조사 문항

조사 문항은 크게 A. 고양시 청년 거주, B. 청년 지원공간 및 청년정책 인식, C. 취·창업, D. 청년의 건강 및 삶으로 구성했고 항목별로 세부 문항을 마련했다. 항목별 설문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항목별 설문지 내용

연번	항목	문항 요약
1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년도 - 성별 - 현재 주거지(스크리닝을 위함) - 고양시 내 거주 중인 지역구
2	A. 고양시 청년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형태 - 주택 유형 - 고양시 거주 애로사항 - 고양시 거주 이유 - 고양시 외부로 이사 계획
3	B.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및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지원공간 만족도 - 청년 지원공간 필요성 - 고양시 청년정책 인식 - 고양시 청년정책 우선 순위
4	C. 고양시 청년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 구직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자원
5	D. 청년의 건강 및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및 건강 상태 - 사회적 불평등 - 지역 사회 신뢰 정도

제3절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성별, 연령, 거주지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152명(50.7%), 여성 148명(49.3%)이었다. 연령대는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기준인 만 19~39세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만 20세 미만은 20명(6.7%), 만 20~24세는 65명(21.7%), 만 25~29세는 74명(24.7%), 만 30~34세는 72명(24.0%), 만 35~39세는 69명(23%)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거주지는 덕양구가 가장 높은 비중(45.3%)을 차지했으며, 일산동구(28.3%), 일산서구(26.3%) 순이었다. 이들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9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 40명(13.3%), 고등학교 졸업 31명(10.3%), 대학원 졸업 14명(4.7%), 중학교 졸업 6명(2%)이 뒤를 이었다. 직업으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29.6%), 학생(19.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2%) 순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응답자 기술 통계(n=300)

	구분	응답	비율
성별	남성	152	50.7
	여성	148	49.3
연령	만 20세 미만	20	6.7
	만 20~24세	65	21.7
	만 25~29세	74	24.7
	만 30~34세	72	24.0
	만 35~39세	69	23.0
거주지	덕양구	136	45.3
	일산동구	85	28.3
	일산서구	79	26.3
최종학력	중학교	6	2.0
	고등학교	31	10.3
	전문대학	40	13.3
	대학교	209	69.7
	대학원	14	4.7
직업	관리자	7	2.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	11.2
	사무직 종사자	87	29.6
	서비스직 종사자	27	9.2
	자영업/창업가	10	3.4
	판매 종사자	1	0.3
	기능원 및 관련 기종 종사자	3	1.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	1.4
	단순 노무 종사자	9	3.1
	시간제 근무자	10	3.4
	군인	2	0.7
	주부	10	3.4
	학생	58	19.7
	무직/퇴직	23	7.8
	기타	1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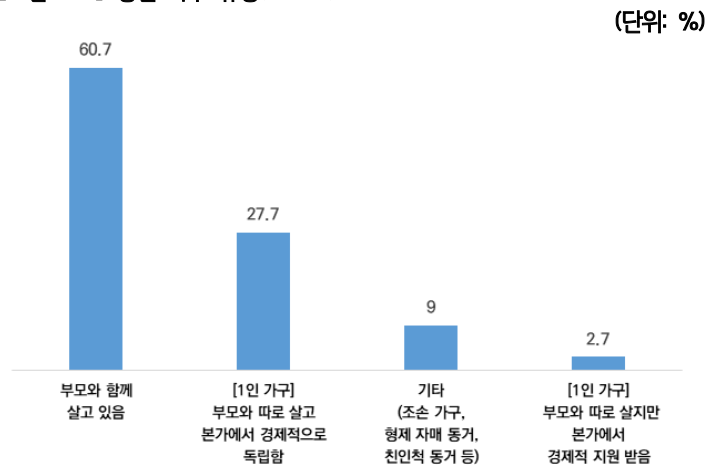
2.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청년 거주

(1) 청년 가구 유형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전체에서 60.7%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1인가구 (30.4%)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가구수의 35.9%인 3분의 1가량이 1인가구로 확인되었는데(경제정보센터, 2021), 고양시도 청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1인가구로서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그중 부모와 별도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1인가구 비중은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7] 청년 가구 유형(n=300)



[표 4-6] 청년 가구 유형(n=300)

(단위: %)

A	B	C	D	계
60.7	27.7	9.0	2.7	100.0

A: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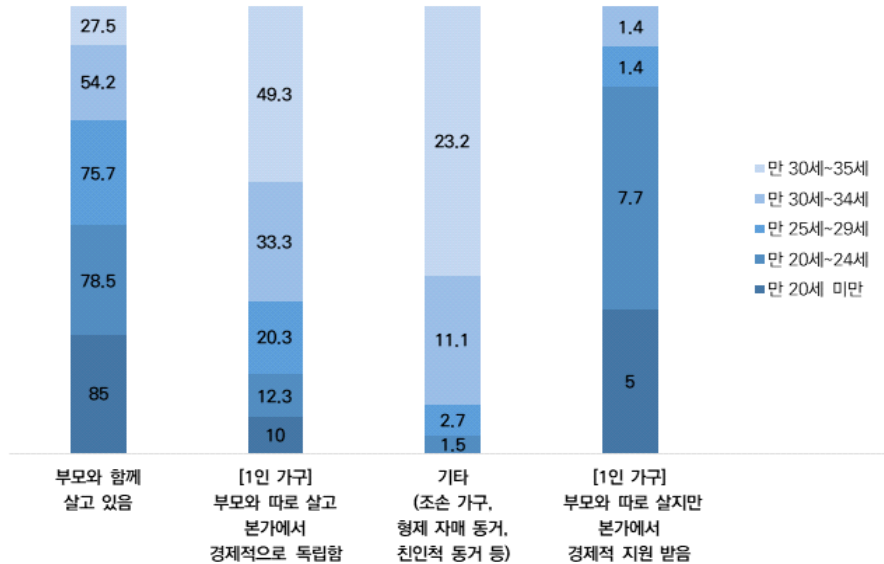
B: [1인가구] 부모와 따로 살고 본가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함

C: 기타(조손가구, 형제자매 동거, 친인척 동거 등)

D: [1인가구]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 받음

[그림 4-8] 연령별 청년 가구 유형(n=300)

(단위: %)



20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평균 77.1%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평균 40.9%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들의 비중은 20대는 평균 14.2%이나 30대는 41.3%를 나타냈다. 앞 장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20대는 부모 세대와 함께 오랜 기간 고양시에서 거주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들이 30대가 되면서 업무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1인가구로서 진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계청 결과를 해석했는데, 실제로 30대 중 39.4%는 1994년 이전부터 고양시에서 거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15년 이후 거주한 30대 비중은 49.1%를 차지함으로써 앞선 해석의 결과와 일치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³⁴⁾. 이를 토대로 고양시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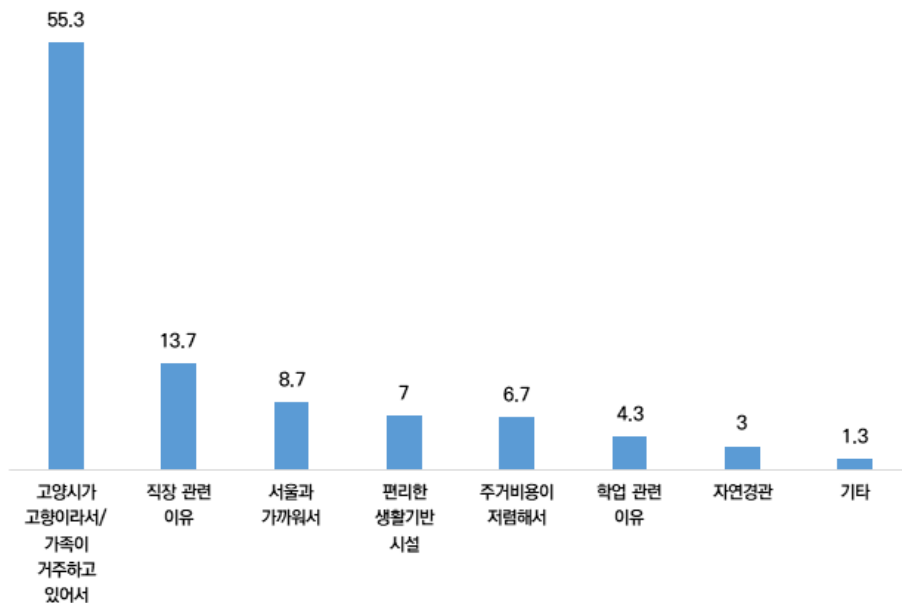
34)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는 것에 응답을 한 사례가 20대 평균 65.9%에서 30대 평균 44.4%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만 35~39세는 이 비중이 29%를 차지하여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이유로는 서울과 가깝다는 점(평균 36%), 편리한 생활 기반 시설이 있다는 점(29.7%), 직장 관련 이유(27.0%)가 뒤를 이었다.

당기간 거주하면서 애착이 높아진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이 공존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한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가구(전체 209명) 중에서는 4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4.5%), 그다음은 3인가구(35.9%), 2인가구(12.9%) 순이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에서도 20대와 30대의 차이가 드러난다. 20대는 고양시가 고향이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69.8%였고, 30대는 평균 60.9%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이 있어서 거주한다는 20대의 응답은 평균 6.3%인 데 비해, 30대는 13.0%를 차지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한 세대인 20대와 직장 등을 이유로 거주하는 30대가 청년층이 공존한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림 4-9]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n=300)

(단위: %)



[표 4-7]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계
전체		55.3	13.7	8.7	7.0	6.7	4.3	3.0	1.3	100.0
성별	남성	52.6	15.1	7.2	5.9	6.6	7.9	3.9	0.7	100.0
	여성	58.1	12.2	10.1	8.1	6.8	0.7	2.0	2.0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75.0	5.0	0.0	5.0	5.0	10.0	0.0	0.0	100.0
	만 20세~24세	64.6	7.7	13.8	3.1	1.5	7.7	0.0	1.5	100.0
	만 25세~29세	62.2	13.5	4.1	8.1	6.8	4.1	0.0	1.4	100.0
	만 30세~34세	59.7	12.5	8.3	6.9	8.3	0.0	4.2	0.0	100.0
	만 35세~39세	29.0	23.2	11.6	10.1	10.1	4.3	8.7	2.9	100.0

A: 고양시가 고향이라서/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B: 직장 관련 이유

C: 서울과 가까워서

D: 편리한 생활 기반 시설(병원, 쇼핑 등)

E: 주거 비용이 저렴해서

F: 학업 관련 이유

G: 도시 곳곳의 자연경관(호수, 녹지 등)

H: 기타

(2) 청년 주거비

고양시 거주 청년 300명 중 38.3%는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6.2%, 여성이 40.5%를 차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부담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평균 26.7%, 30대가 평균 49.1%로 나타나 30대 이상 청년의 주거 부담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소득 희망 금액은 평균 224.41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평균 218.70만 원이라고 응답했고, 여성은 평균 230.27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203.58만 원으로 대답한 데 비해 30대는 250.9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청년 중에서도 나이대별로 거주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최소한의 주거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적절한 생활 소득은 평균 334.9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39.3만 원, 여성이 330.4만 원으로 희망했다. 나이대별 고양시에서 생활하기에 적절한 소득으로 20대가 309.2만 원, 30대가 366.6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8] 연 최소 주거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성별 전체		10.7	26.3	35.0	18.7	3.0	6.3
성별	남성	14.5	25.0	32.9	17.8	3.9	5.9
	여성	6.8	27.7	37.2	19.6	2.0	6.8
연령	만 20세 미만	25.0	20.0	25.0	20.0	0.0	10.0
	만 20~24세	18.5	24.6	32.3	18.5	3.1	3.1
	만 25~29세	9.5	37.8	35.1	12.2	1.4	4.1
	만 30~34세	5.6	22.2	41.7	22.2	2.8	5.6
	만 35~39세	5.8	21.7	33.3	21.7	5.8	11.6

A: 100만 원 미만

B: 100만~200만 원 미만

C: 200만~300만 원 미만

D: 300만~400만 원 미만

E: 400만~500만 원 미만

F: 500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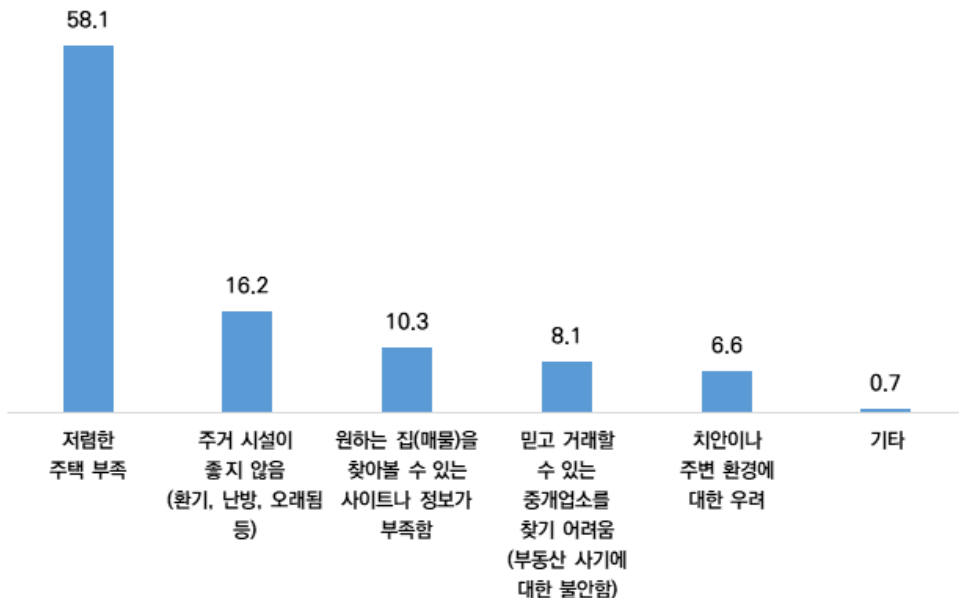
(3) 주거 관련 애로사항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주거 공간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는 전체에서 평균 45.3%(136명)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확인하면 남성은 40.8%, 여성은 50.0%로 성별에서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³⁵⁾을 알 수 있었다. 나이대별로는 20대가 평균

31.4%, 30대가 평균 56.8%를 차지했다. 주된 이유로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가장 높았고(58.1%), 주거 시설이 좋지 않았다(16.2%)와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하다(1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자영업 및 창업가 등에서도 저렴한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평균 59.7%)을 제시해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 근로자와 창업가가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도 저렴한 주택 부족(79.4%), 주거 시설이 좋지 않음(49.3%),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하다(29.4%)로 확인되었다. 특이한 점은 여성은 주택 관련 탐색 과정에서 나이 혹은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1.4%)이었다.

[그림 4-10] 주거 관련 애로사항 - 1순위(n=136)

(단위: %)



35) 어려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9] 주거 관련 애로사항 - 1순위(n=136)

(단위: %)

구분		A	B	C	D	E	F	계
전체		58.1	16.2	10.3	8.1	6.6	0.7	100.0
성별	남성	64.5	12.9	9.7	4.8	6.5	1.6	100.0
	여성	52.7	18.9	10.8	10.8	6.8	0.0	100.0

A: 저렴한 주택 부족

B: 주거 시설이 좋지 않음(환기, 난방, 오래됨 등)

C: 원하는 집(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함

D: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찾기 어려움(부동산 사기에 대한 불안함)

E: 치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

F: 기타

[표 4-10] 주거 관련 애로사항 - 복수응답 허용(n=136)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전체		79.4	49.3	29.4	24.3	13.2	3.7	0.7
성별	남성	85.5	48.4	29.0	19.4	12.9	4.8	0.0
	여성	74.3	50.0	29.7	28.4	13.5	2.7	1.4

A: 저렴한 주택 부족

B: 주거 시설이 좋지 않음(환기, 난방, 오래됨 등)

C: 원하는 집(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함

D: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찾기 어려움(부동산 사기에 대한 불안함)

E: 치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

F: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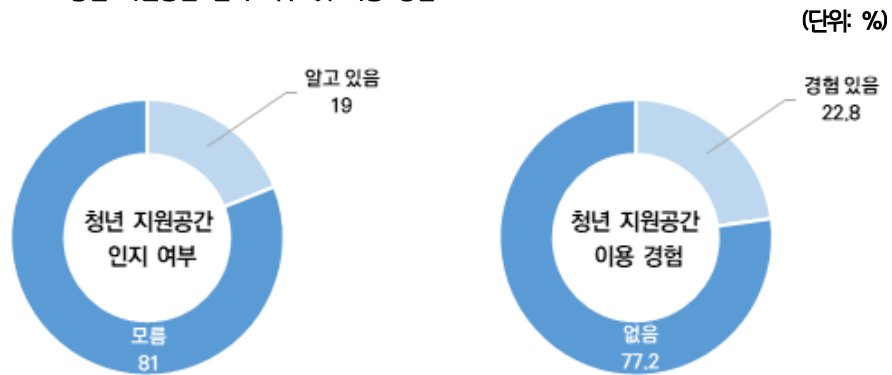
G: 나이나 성별 등 때문에 차별을 겪음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 300명 중 거주 이동 예정자는 약 23.7%(71명)로 확인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비율(각각 24.0%, 23.9%)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거리 출퇴근이었고(59.2%),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 불편(53.5%), 일자리 부족(21.1%)이 뒤를 이었다.

2) 청년 지원공간 및 정책 인식

전체 응답자 300명 중 고양시에 청년 지원공간³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응답자 비중은 전체 평균 19.0%였고 81.0%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 청년정책도 13.7%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 인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림 4-11] 청년 지원공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표 4-11] 청년 지원공간 인지 여부(n=300)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전체		19.0	81.0	100.0
성별	남성	19.1	80.9	100.0
	여성	18.9	81.1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10.0	90.0	100.0
	만 20~24세	29.2	70.8	100.0
	만 25~29세	27.0	73.0	100.0
	만 30~34세	12.5	87.5	100.0
	만 35~39세	10.1	89.9	100.0
	만 40~44세	10.1	89.9	100.0
거주지	덕양구	22.1	77.9	100.0
	일산동구	16.5	83.5	100.0
	일산서구	16.5	83.5	100.0

청년 지원공간을 인지하는 응답자 중 이용 경험은 22.8%(57명)로 나타나 전반적으

36) 청취다방,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 청소년재단,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산업진흥원 등이 있다.

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지원공간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4-12] 청년 공간 이용 경험(n=5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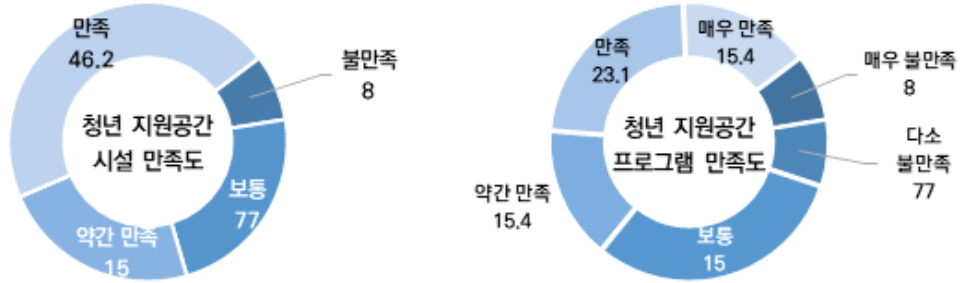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전체		22.8	77.2	100.0
성별	남성	24.1	75.9	100.0
	여성	21.4	78.6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0.0	100.0	100.0
	만 20~24세	15.8	84.2	100.0
	만 25~29세	35.0	65.0	100.0
	만 30~34세	22.2	77.8	100.0
	만 35~39세	14.3	85.7	100.0
거주지	덕양구	26.7	73.3	100.0
	일산동구	7.1	92.9	100.0
	일산서구	30.8	69.2	100.0

프로그램 만족도는 크게 하드웨어적인 시설 만족도와 소프트웨어적인 청년 지원공간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정책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응답은 청년 지원공간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를 이용한 청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6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명, 30대가 3명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직 종사자 3명, 사무직 종사자 2명, 서비스직 종사자 1명, 학생 4명, 무작퇴직 1명, 기타 2명이었다.

먼저 시설은 응답자 중 69.2%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1%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7.7%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남겼다. 다음으로 청년 지원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응답자 중 53.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30.8%, 불만족은 15.4%로 확인되었다. 특히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에서 30대(50%), 여성(16.7%), 대학교 졸업자(9.1%), 무작퇴직(100%)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 세대에 속한 여성 중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2]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n=13)

(단위: %)



[표 4-13]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시설 만족도(n=13)

(단위: %)

구분		A	B	C	D	계
전체		7.7	23.1	23.1	46.2	100.0
성별	남성	0.0	42.9	0.0	57.1	100.0
	여성	16.7	0.0	50.0	33.3	100.0
연령	만 20세~24세	0.0	33.3	0.0	66.7	100.0
	만 25세~29세	0.0	28.6	28.6	42.9	100.0
	만 30세~34세	50.0	0.0	0.0	50.0	100.0
	만 35세~39세	0.0	0.0	100.0	0.0	100.0
거주지	덕양구	12.5	37.5	12.5	37.5	100.0
	일산동구	0.0	0.0	0.0	100.0	100.0
	일산서구	0.0	0.0	50.0	50.0	100.0
최종	전문대학	0.0	10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9.1	18.2	18.2	54.5	100.0
	대학원	0.0	0.0	100.0	0.0	100.0
직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	66.7	0.0	33.3	100.0
	사무직 종사자	0.0	0.0	100.0	0.0	100.0
	서비스직 종사자	0.0	0.0	100.0	0.0	100.0
	학생	0.0	25.0	0.0	75.0	100.0
	무직/퇴직	100.0	0.0	0.0	0.0	100.0
	기타	0.0	0.0	0.0	100.0	100.0

A: 불만족한다
 B: 보통이다
 C: 약간 만족한다
 D: 만족한다

[표 4-14]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 자원공간 프로그램 만족도(n=13)

(단위: %)

구분		A	B	C	D	E	F	계
전체		7.7	7.7	30.8	15.4	23.1	15.4	100.0
성별	남성	0.0	14.3	28.6	28.6	28.6	0.0	100.0
	여성	16.7	0.0	33.3	0.0	16.7	33.3	100.0
연령	만 20~24세	0.0	33.3	33.3	0.0	33.3	0.0	100.0
	만 25~29세	0.0	0.0	28.6	28.6	14.3	28.6	100.0
	만 30~34세	50.0	0.0	0.0	0.0	50.0	0.0	100.0
	만 35~39세	0.0	0.0	100.0	0.0	0.0	0.0	100.0
거주지	덕양구	12.5	12.5	25.0	12.5	25.0	12.5	100.0
	일산동구	0.0	0.0	0.0	0.0	100.0	0.0	100.0
	일산서구	0.0	0.0	50.0	25.0	0.0	25.0	100.0
최종 학력	전문대학	0.0	100.0	0.0	0.0	0.0	0.0	100.0
	대학교	9.1	0.0	27.3	18.2	27.3	18.2	100.0
	대학원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	33.3	0.0	66.7	0.0	0.0	100.0
	사무직 종사자	0.0	0.0	50.0	0.0	50.0	0.0	100.0
	서비스직 종사자	0.0	0.0	0.0	0.0	0.0	100.0	100.0
	학생	0.0	0.0	75.0	0.0	25.0	0.0	100.0
	무직/퇴직	10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0.0	0.0	0.0	0.0	50.0	50.0	100.0

A: 매우 불만족한다

B: 다소 불만족한다

C: 보통이다

D: 약간 만족한다

E: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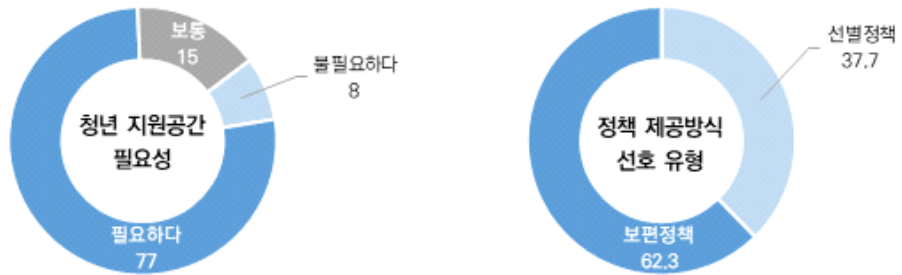
F: 매우 만족한다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77.0%가 정책 방향성에 공감했다. 이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36.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22.3%),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1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선별 정책³⁷⁾보다 보편 정책³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38.0%), 고용 및 창업지원(23.7%), 자기 탐색 지원(10.0%) 사업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3] 청년 지원공간 필요성 및 정책 제공방식 선호유형

(단위: %)



[표 4-15] 청년정책 제공 방식(n=300)

(단위: %)

구분		A	B	계
전체		62.3	37.7	100.0
성별	남성	60.5	39.5	100.0
	여성	64.2	35.8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65.0	35.0	100.0
	만 20~24세	67.7	32.3	100.0
	만 25~29세	70.3	29.7	100.0
	만 30~34세	62.5	37.5	100.0
	만 35~39세	47.8	52.2	100.0
거주지	덕양구	59.6	40.4	100.0
	일산동구	67.1	32.9	100.0
	일산서구	62.0	38.0	100.0

A: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7)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 순위자에게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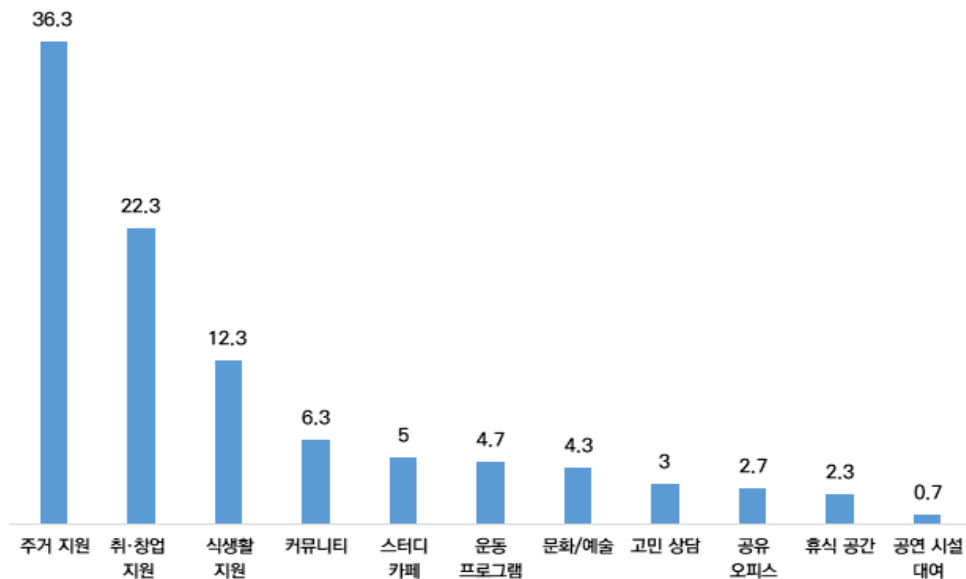
38) 특정한 순위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청년 지원공간에서 기대하는 프로그램 순위로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사지원, 공인중개료 반값 수수료,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장 높았고 (36.3%), 취·창업 지원프로그램(22.3%)과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공유주방, 건강한 식재료 지원, 채소재배 키트, 무료 쿠킹클래스 등, 12.3%)이 그 뒤를 이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6.3%), 스터디카페(5.0%), 운동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댄스, 4.7%), 문화예술 프로그램(공예, 회화 등, 4.3%), 고민상담 프로그램(3.0%), 공유 오피스(2.7%), 휴식 공간(2.3%), 공연 시설 대여(0.7%)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이한 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이 있었다.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에서는 남성(9.9%)보다 여성이(14.9%) 더욱 공감했으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여성(2.0%)보다는 남성(10.5%)이,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여성(1.4%)보다는 남성(4.6%)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4]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1순위(n=300)

(단위: %)



[표 4-16]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계
전체		36.3	22.3	12.3	6.3	5.0	4.7	4.3	3.0	2.7	2.3	0.7	100.0
성별	남성	34.2	20.4	9.9	10.5	5.3	4.6	5.3	4.6	2.0	2.0	1.3	100.0
	여성	38.5	24.3	14.9	2.0	4.7	4.7	3.4	1.4	3.4	2.7	0.0	100.0

A: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사지원, 공인중개료 반값 수수료,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등)

B: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C: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공유주방, 건강한 식재료 지원, 채소재배 키트, 무료 쿠킹클래스 등)

D: 커뮤니티 프로그램

E: 스터디카페

F: 운동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G: 문화예술 프로그램(공예, 회화 등)

H: 고민 상담 프로그램

I: 공유 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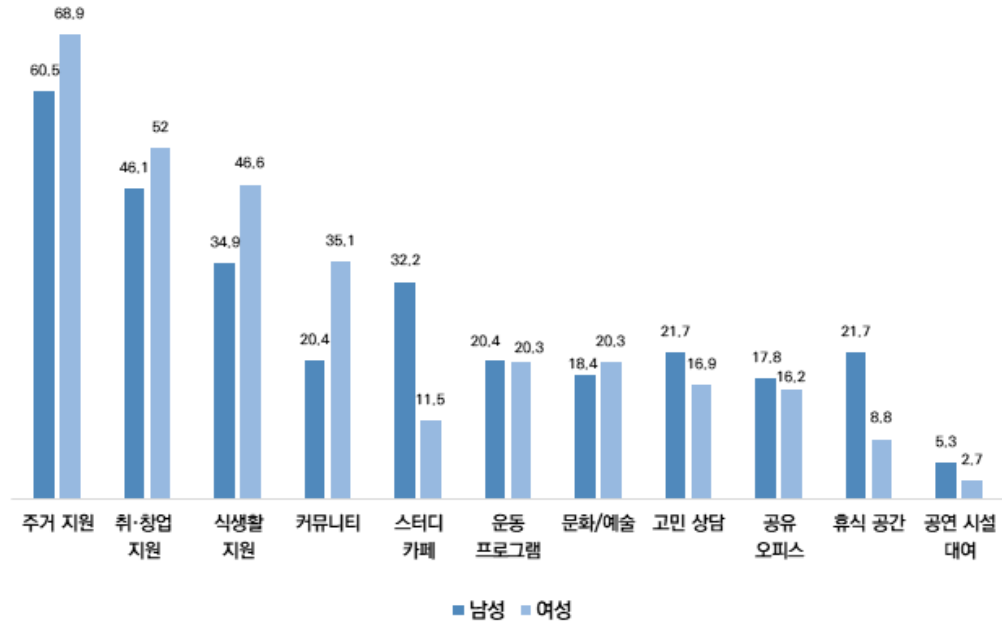
J: 휴식 공간

K: 공연 시설 대여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사 지원, 공인중개료 반값 수수료,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이 전체 응답자 300명 중 64.7%로 가장 높았고,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49.0%), 식생활 지원프로그램(공유주방, 건강한 식재료 지원, 채소 재배 키트, 무료 쿠킹 클래스 등, 40.7%) 순이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여성(11.5%)보다는 남성(32.2%)이, 운동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수요는 남성(20.4%)보다는 여성(35.1%)이,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여성(8.8%)보다 남성(21.7%)이, 휴식 공간에서는 여성(8.8%)보다 남성(21.7%)이 필요성에 더 공감했다.

[그림 4-15]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복수 응답(n=300)

(단위: %)



[표 4-17]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 복수 응답(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전체		64.7	49.0	40.7	27.7	22.0	20.3	19.3	19.3	17.0	15.3	4.0
성별	남성	60.5	46.1	34.9	20.4	32.2	20.4	18.4	21.7	17.8	21.7	5.3
	여성	68.9	52.0	46.6	35.1	11.5	20.3	20.3	16.9	16.2	8.8	2.7

A: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사지원, 공인중개료 반값 수수료,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등)

B: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C: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공유주방, 건강한 식재료 지원, 채소재배 키트, 무료 쿠킹클래스 등)

D: 커뮤니티 프로그램

E: 스터디카페

F: 운동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G: 문화예술 프로그램(공예, 회화 등)

H: 고민 상담 프로그램

I: 공유 오피스

J: 휴식 공간

K: 공연 시설 대여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n=300)의 34.4%에 해당하였다. 그중 15.7%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비중은 0.7%로 확인되었다. 성별과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정책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표 4-18] 고양시 청년정책 인지 정도(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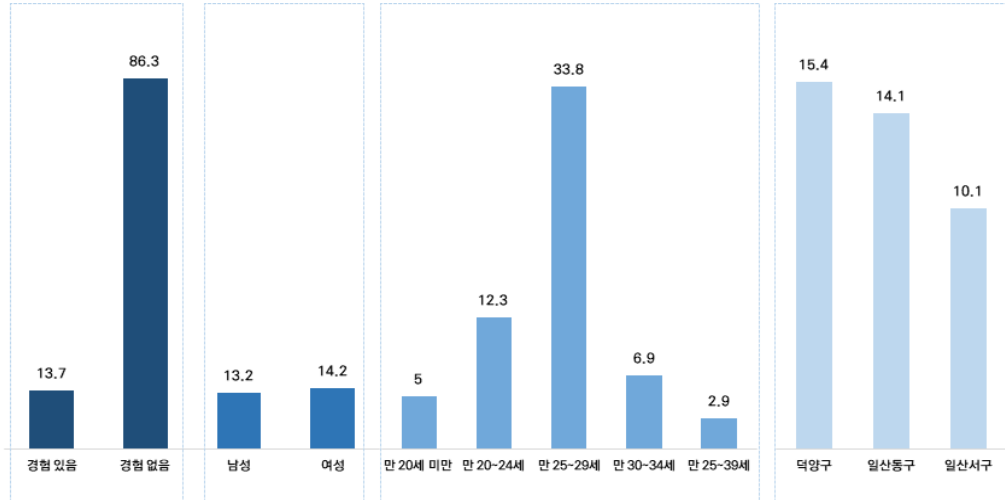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계
전체		15.7	24.0	24.0	15.3	17.0	3.3	0.7	100.0
성별	남성	15.8	20.4	19.7	20.4	19.7	2.6	1.3	100.0
	여성	15.5	27.7	28.4	10.1	14.2	4.1	0.0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15.0	20.0	25.0	20.0	20.0	0.0	0.0	100.0
	만 20~24세	6.2	20.0	30.8	20.0	16.9	6.2	0.0	100.0
	만 25~29세	12.2	16.2	20.3	16.2	27.0	5.4	2.7	100.0
	만 30~34세	23.6	27.8	25.0	12.5	9.7	1.4	0.0	100.0
	만 35~39세	20.3	33.3	20.3	11.6	13.0	1.4	0.0	100.0

A: 전혀 모른다
 B: 모른다
 C: 다소 모른다
 D: 보통이다
 E: 약간 안다
 F: 안다
 G: 매우 잘 안다

이들 중 청년정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7%였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86.3%였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는 20대 후반(만 25~29세)이었고, 만 35~39세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4-16] 고양시 청년정책 경험 여부(n=300)

(단위: %)



[표 4-19] 고양시 청년정책 경험 여부(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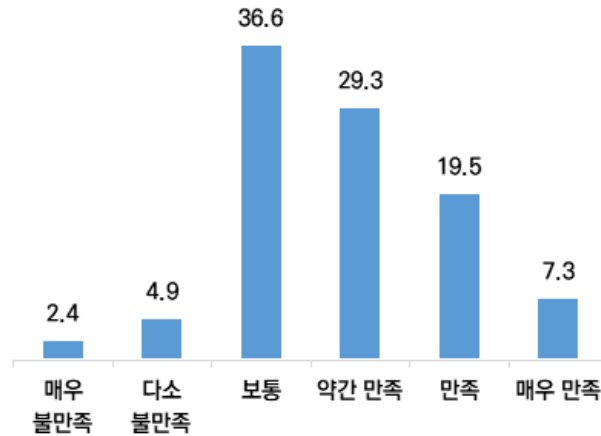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전체		13.7	86.3	100.0
성별	남성	13.2	86.8	100.0
	여성	14.2	85.8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5.0	95.0	100.0
	만 20~24세	12.3	87.7	100.0
	만 25~29세	33.8	66.2	100.0
	만 30~34세	6.9	93.1	100.0
	만 35~39세	2.9	97.1	100.0
거주지	덕양구	15.4	84.6	100.0
	일산동구	14.1	85.9	100.0
	일산서구	10.1	89.9	100.0

현재 추진 중인 고양시 청년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정책 경험이 있는 총 41명이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21명이었고, 나이대별로는 20대가 34명, 30대가 7명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평균 56.1%로 나타났다.

[그림 4-17]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정책 만족도(n=41)

(단위: %)



[표 4-20] 참가자 대상 고양시 청년정책 만족도(n=41)

(단위: %)

구분		A	B	C	D	E	F	계
전체		2.4	4.9	36.6	29.3	19.5	7.3	100.0
성별	남성	5.0	10.0	30.0	20.0	30.0	5.0	100.0
	여성	0.0	0.0	42.9	38.1	9.5	9.5	100.0
연령	만 20~24세	0.0	0.0	100.0	0.0	0.0	0.0	100.0
	만 25~29세	0.0	0.0	37.5	25.0	25.0	12.5	100.0
	만 30~34세	4.0	4.0	40.0	28.0	20.0	4.0	100.0
	만 35~39세	0.0	20.0	20.0	60.0	0.0	0.0	100.0

A: 매우 불만족한다

B: 다소 불만족한다

C: 보통이다

D: 약간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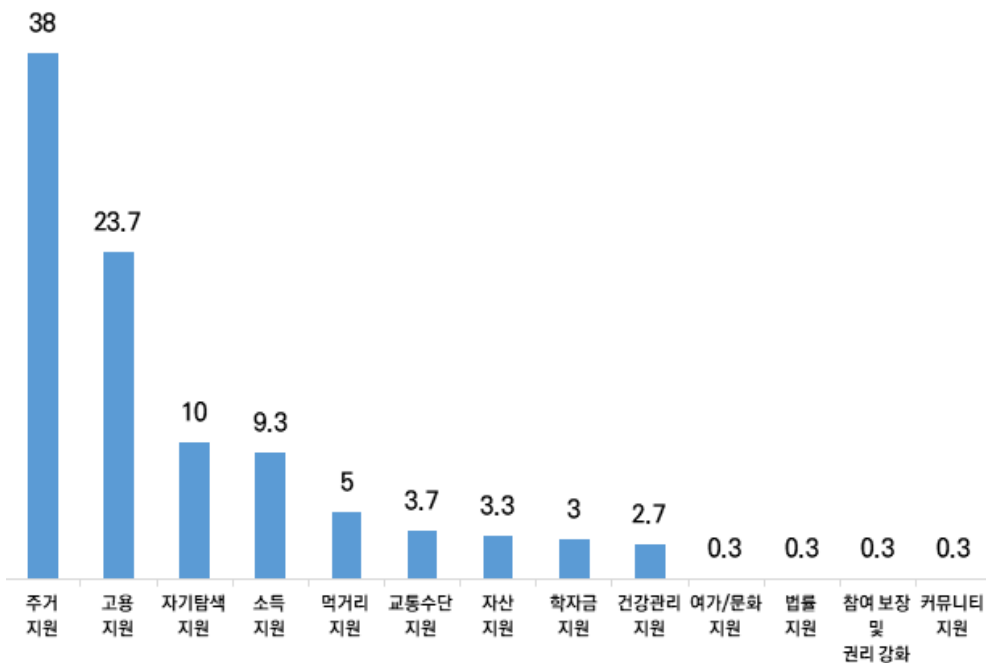
E: 만족한다

F: 매우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순위를 응답을 통해 확인했다. 전체 응답자 300명 중 38.0%는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을 선택했고, 그다음 고용(취업, 창업) 지원(23.7%), 자기 탐색 지원 사업(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등) 순이었다. 여가 문화, 법률 지원, 참여 및 권리 강화, 커뮤니티 지원 등은 각 0.3%로 확인되어 주거, 고용, 자기 탐색 등과 대비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는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이 가장 높은 비중(57.3%)을 차지했고, 고용(취업, 창업) 지원(57.3%), 소득(생활비 등) 지원이 41.3%로 나타났다.

[그림 4-18]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1순위(n=300)

(단위: %)



[표 4-21]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계
전체	38.0	23.7	10.0	9.3	5.0	3.7	3.3	3.0	2.7	0.3	0.3	0.3	0.3	100.0
성별 남성	33.6	28.9	12.5	7.2	5.9	3.3	3.9	2.6	1.3	0.0	0.0	0.0	0.7	100.0
여성	42.6	18.2	7.4	11.5	4.1	4.1	2.7	3.4	4.1	0.7	0.7	0.7	0.0	100.0

A: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B: 고용(취업, 창업) 지원
 C: 자기탐색 지원 사업(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D: 소득 지원(생활비 등)
 E: 먹거리 지원(건강한 식재료 지원, 쿠킹클래스 운영, 식비 부담 완화)
 F: 교통수단 관련 지원(교통비 할인, 교통수단 대여 등)
 G: 자산 지원(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H: 학자금 지원
 I: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J: 여가/문화 지원
 K: 법률 지원
 L: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M: 커뮤니티 지원(취미 및 정보 공유)

[표 4-22]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 복수 응답(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전체	57.3	57.3	41.3	33.7	24.3	18.7	16.0	14.7	11.0	10.0	4.7	4.7	4.7	1.7
성별 남성	54.6	58.6	42.8	34.2	24.3	14.5	17.8	16.4	10.5	9.2	5.9	5.9	4.6	0.7
여성	60.1	56.1	39.9	33.1	24.3	23.0	14.2	12.8	11.5	10.8	3.4	3.4	4.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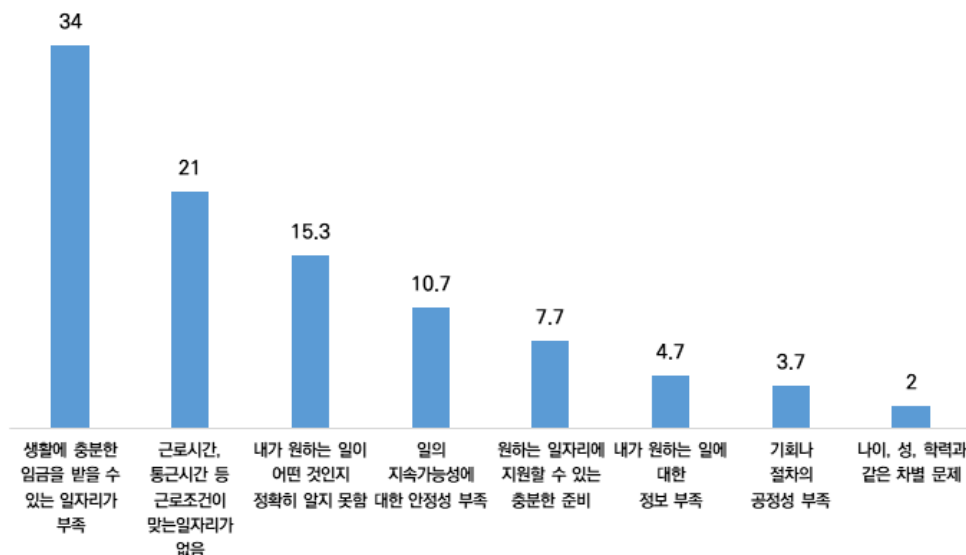
A: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B: 고용(취업, 창업) 지원
 C: 소득 지원(생활비 등)
 D: 자기탐색 지원 사업(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E: 자산 지원(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E: 교통수단 관련 지원(교통비 할인, 교통수단 대여 등)
 F: 먹거리 지원(건강한 식재료 지원, 쿠킹클래스 운영, 식비 부담 완화)
 G: 학자금 지원
 H: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I: 여가/문화 지원
 J: 법률 지원
 K: 커뮤니티 지원(취미 및 정보 공유)
 L: 신용회복 지원
 M: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3) 청년 취창업

고양시 청년 당사자는 일자리 관련 문제점으로 생활하는 데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34.0%)는 점을 1순위로 선정했다. 그다음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21.0%)고 보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15.3%)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초반인 경우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0.0%)는 것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는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부족하다(64.3%)가 1순위였으나, 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안정성 부족이 60.0%로 2순위를 차지했고,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59.0%)가 그다음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37.3%)나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렵다(33.0%)도 주된 문제라고 보았다.

[그림 4-19]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1순위(n=300)

(단위: %)



[표 4-23]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계
전체		34.0	21.0	15.3	10.7	7.7	4.7	3.7	2.0	1.0	100.0
성별	남성	29.6	22.4	15.1	12.5	9.2	3.9	5.3	0.7	1.3	100.0
	여성	38.5	19.6	15.5	8.8	6.1	5.4	2.0	3.4	0.7	100.0
연령	만 20세 미만	30.0	20.0	15.0	15.0	10.0	10.0	0.0	0.0	0.0	100.0
	만 20~24세	35.4	16.9	16.9	7.7	9.2	6.2	3.1	4.6	0.0	100.0
	만 25~29세	28.4	25.7	9.5	13.5	13.5	2.7	4.1	1.4	1.4	100.0
	만 30~34세	36.1	23.6	19.4	5.6	2.8	5.6	5.6	0.0	1.4	100.0
	만 35~39세	37.7	17.4	15.9	14.5	4.3	2.9	2.9	2.9	1.4	100.0

- A: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B: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C: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D: 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부족(고용안정성,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E: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려움
 F: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
 G: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 부족
 H: 나이, 성별, 학력과 같은 차별 문제
 I: 기타

[표 4-24] 고양시 청년 일자리 문제점 - 중복 응답(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전체		64.3	60.0	59.0	37.3	33.0	17.3	14.7	12.7	1.7
성별	남성	58.6	62.5	59.2	36.8	36.2	18.4	15.1	10.5	2.6
	여성	70.3	57.4	58.8	37.8	29.7	16.2	14.2	14.9	0.7
연령	만 20세 미만	75.0	60.0	40.0	40.0	40.0	20.0	15.0	10.0	0.0
	만 20~24세	60.0	44.6	61.5	40.0	36.9	20.0	23.1	13.8	0.0
	만 25~29세	58.1	56.8	59.5	37.8	43.2	17.6	12.2	13.5	1.4
	만 30~34세	70.8	63.9	66.7	31.9	23.6	19.4	9.7	11.1	2.8
	만 35~39세	65.2	73.9	53.6	39.1	26.1	11.6	14.5	13.0	2.9

- A: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B: 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부족(고용안정성,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C: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D: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E: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려움
 F: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
 G: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 부족
 H: 나이, 성별, 학력과 같은 차별 문제
 I: 기타

이들은 무직 기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150.8만 원이라고 응답했으며,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은 평균 119.2만 원이라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들이 취업 혹은 창업에 소요된 구직 기간은 평균 1.2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5] 무직 기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계
전체	5.0	17.7	27.3	13.7	22.3	14.0	100.0
성별							
남성	4.6	19.7	26.3	10.5	21.7	17.1	100.0
여성	5.4	15.5	28.4	16.9	23.0	10.8	100.0

A: 50만 원 미만
 B: 50만~100만 원 미만
 C: 100만~150만 원 미만
 D: 150만~200만 원 미만
 E: 200만~250만 원 미만
 F: 250만 원 이상

[표 4-26] 무직 기간에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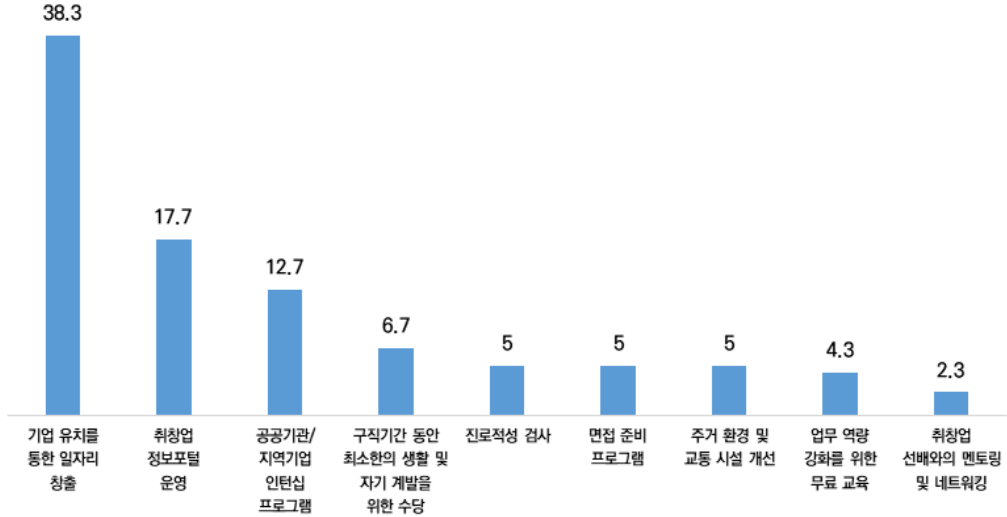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계
전체	25.3	26.3	24.7	14.0	9.7	100.0
성별						
남성	24.3	21.1	27.6	13.8	13.2	100.0
여성	26.4	31.8	21.6	14.2	6.1	100.0

A: 50만 원 미만
 B: 50만~100만 원 미만
 C: 100만~200만 원 미만
 D: 200만~300만 원 미만
 E: 300만 원 이상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청년 맞춤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17.7%),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12.7%) 순이었다.

[그림 4-20]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1순위(n=300)

(단위: %)



[표 4-27]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계
전체	38.3	17.7	12.7	6.7	5.0	5.0	5.0	4.3	2.3	1.3	1.3	0.3	100.0
성별 남성	43.4	15.8	9.9	3.9	5.3	4.6	3.3	5.9	3.9	2.0	1.3	0.7	100.0
여성	33.1	19.6	15.5	9.5	4.7	5.4	6.8	2.7	0.7	0.7	1.4	0.0	100.0

- A: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B: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
 C: 공공기관/지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D: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당
 E: 진로 적성 검사를 위한 적성 검사
 F: 면접 준비 프로그램(교통비 지원, 정장 대여, 모의면접 등)
 G: 주거 환경 및 교통 시설 개선
 H: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교육
 I: 취·창업 선배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J: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지원금(seed) 제공
 K: 취업 스트레스(우울감, 좌절감 등)에 대한 심리 상담
 L: 기타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53.0%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그다음 청년 맞춤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이 49.7%,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이 40.3%를 차지했다.

[표 4-28]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 복수 응답(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전체	53.0	49.7	40.3	30.0	25.0	20.7	20.3	16.0	15.0	11.7	10.7	6.7	1.0
성별													
남성	57.9	52.6	38.8	22.4	21.1	18.4	20.4	17.8	18.4	7.9	13.8	9.2	1.3
여성	48.0	46.6	41.9	37.8	29.1	23.0	20.3	14.2	11.5	15.5	7.4	4.1	0.7

- A: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B: 청년 맞춤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
 C: 공공기관/지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D: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당
 E: 면접 준비 프로그램(교통비 지원, 정장 대여, 모의면접 등)
 F: 주거 환경 및 교통 시설 개선
 G: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교육
 H: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지원금(seed) 제공
 I: 진로 적성 검사를 위한 적성 검사
 J: 취업 스트레스(우울감, 좌절감 등)에 대한 심리 상담
 K: 취·창업 선배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L: 청년 창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M: 기타

고양시 소재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으로는 낮은 급여 수준이 3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 이유가 다양한 업종의 부재(21.3%)와 기업의 영세한 규모(10.0%)로 확인되었다. 복수 응답에서도 낮은 급여 수준(6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양한 업종의 부재(52.0%)와 기업의 영세한 규모(43.3%)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29] 고양시 소재의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계
전체	35.0	21.3	10.0	9.3	7.7	5.7	4.0	2.7	2.0	1.3	1.0	100.0
성별												
남성	38.8	18.4	7.9	11.2	6.6	6.6	3.3	2.6	2.0	2.0	0.7	100.0
여성	31.1	24.3	12.2	7.4	8.8	4.7	4.7	2.7	2.0	0.7	1.4	100.0

A: 낮은 급여 수준
 B: 다양한 업종의 부재
 C: 기업의 영세한 규모
 D: 기업 정보 획득의 어려움
 E: 불편한 교통 시설
 F: 낮은 성장(자기 계발) 가능성
 G: 열악한 근무 환경
 H: 업무량 과다
 I: 조직문화(권위적, 불합리 등)
 J: 기타
 K: 열악한 주거 환경

[표 4-30] 고양시 소재의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 - 복수 응답(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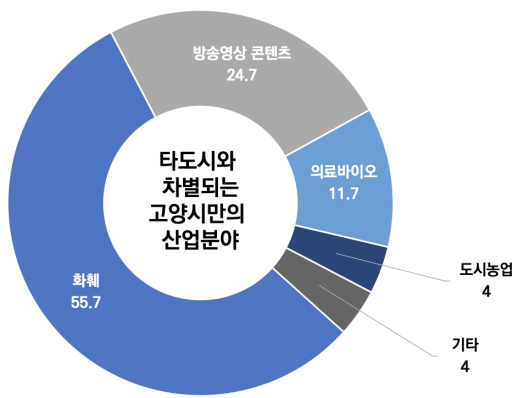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전체	63.0	52.0	43.3	35.0	33.0	22.3	19.3	14.7	11.3	4.0	2.0
성별											
남성	64.5	49.3	46.1	36.2	33.6	17.8	19.7	14.5	13.2	2.6	2.6
여성	61.5	54.7	40.5	33.8	32.4	27.0	18.9	14.9	9.5	5.4	1.4

A: 낮은 급여 수준
 B: 다양한 업종의 부재
 C: 기업의 영세한 규모
 D: 기업 정보 획득의 어려움
 E: 불편한 교통 시설
 F: 낮은 성장(자기 계발) 가능성
 G: 열악한 근무 환경
 H: 업무량 과다
 I: 조직문화(권위적, 불합리 등)
 J: 열악한 주거 환경
 K: 기타

마지막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관련 응답에서는 화훼(꽃시장, 꽃박람회 등)가 5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 방송 영상 콘텐츠 24.7%, 의료 바이오 11.7% 순이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는 화훼(꽃시장, 꽃박람회 등)가 78.3%로 가장 높았으며, 방송 영상 콘텐츠 62.0%, 도시 농업 28.0% 순이었다.

[그림 4-21]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1순위(n=300) (단위: %)



[표 4-31]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55.7	24.7	11.7	4.0	4.0	100.0
성별						
남성	49.3	25.0	13.8	5.3	6.6	100.0
여성	62.2	24.3	9.5	2.7	1.4	100.0

A: 화훼(꽃시장, 꽃박람회 등)
B: 방송 영상 콘텐츠
C: 의료 바이오
D: 도시농업
E: 기타

[표 4-32]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 - 복수 응답(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전체	78.3	62.0	28.0	25.3	6.3
성별					
남성	71.1	59.9	30.3	29.6	9.2
여성	85.8	64.2	25.7	20.9	3.4

A: 화훼(꽃시장, 꽃박람회 등)

B: 방송 영상 콘텐츠

C: 의료 바이오

D: 도시농업

E: 기타

4) 건강과 삶

고양시 청년은 조사일 시점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느낀 주요 감정과 관련해 비교적 잘 지냈다고 응답한 비중이 35.3%로 확인되었다. 그다음으로 16.3%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고 응답했으나 12.0%는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11.7%), 우울하거나(8.0%), 식욕 부진(5.3%), 어떤 일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4.7%)거나, 외로움 등을 느낀다(3.7%)고 응답한 청년도 있었다.

[표 4-33] 지난 한 달간 주요하게 느낀 감정 1순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계
전체	35.3	16.3	12.0	11.7	8.0	5.3	4.7	3.7	1.3	1.0	0.7	100.0
성별												
남성	38.2	17.1	8.6	7.9	9.2	5.3	4.6	5.3	0.7	2.0	1.3	100.0
여성	32.4	15.5	15.5	15.5	6.8	5.4	4.7	2.0	2.0	0.0	0.0	100.0

A: 비교적 잘 지냈다

B: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C: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D: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 상당히 우울했다

F: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G: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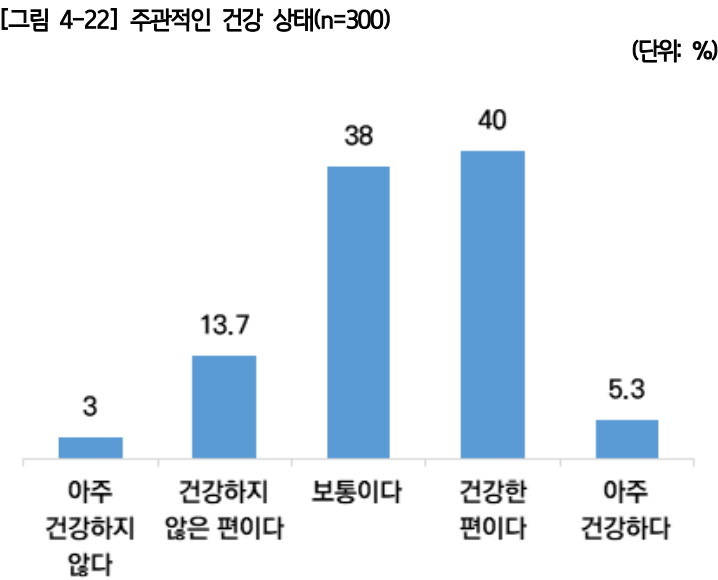
H: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I: 마음이 슬펐다

J: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K: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5.3%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0%였다.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16.7%로 확인되었다.



[표 4-34] 주관적인 건강 상태(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3.0	13.7	38.0	40.0	5.3	100.0
성별	남성	3.3	11.8	38.2	39.5	7.2	100.0
	여성	2.7	15.5	37.8	40.5	3.4	100.0

A: 아주 건강하지 않다
B: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C: 보통이다
D: 건강한 편이다
E: 아주 건강하다

일주일당 아침식사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거의 안 한다가 4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 주 5~7회(23.3%), 주 3~4회(15.7%), 주 1~2회(13.7%) 순으로 확인되었다.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혼자가 70.7%로 가장 높았고, 가족 22.3%, 그 외 4.0% 순이었다. 또한 아침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평균 15.5분으로 확인되었다.

[표 4-35] 일주일당 아침식사 횟수(n=300)

(단위: %)

구분	A	B	C	D	계
전체	47.3	23.3	15.7	13.7	100.0
성별 남성	42.8	23.0	17.1	17.1	100.0
여성	52.0	23.6	14.2	10.1	100.0

A: 거의 안 한다

B: 주 5~7회

C: 주 3~4회

D: 주 1~2회

[표 4-36]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인원(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70.7	22.3	4.0	1.7	1.3	100.0
성별 남성	67.1	25.0	3.3	3.3	1.3	100.0
여성	74.3	19.6	4.7	0.0	1.4	100.0

A: 혼자

B: 가족

C: 그 외

D: 직장 동료

E: 친구

일주일당 점심식사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주 5~7회가 7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 3~4회(14.0%), 주 1~2회(4.0%) 순으로 확인되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혼자가 41.0%로 가장 높았고, 직장 동료 33.7%, 가족 16.0% 순이었다. 또한 점심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평균 35.7분으로 확인되었다.

[표 4-37] 일주일당 점심식사 횟수(n=300)

(단위: %)

구분		A	B	C	D	계
전체		78.3	14.0	4.0	3.7	100.0
성별	남성	80.9	11.8	3.9	3.3	100.0
	여성	75.7	16.2	4.1	4.1	100.0

A: 주 5~7회
B: 주 3~4회
C: 주 1~2회
D: 거의 안 한다

[표 4-38]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인원(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41.0	33.7	16.0	7.3	2.0	100.0
성별	남성	34.9	37.5	16.4	9.9	1.3	100.0
	여성	47.3	29.7	15.5	4.7	2.7	100.0

A: 혼자
B: 직장 동료
C: 가족
D: 친구
E: 그 외

일주일당 저녁식사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주 5~7회가 7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 3~4회(16.7%), 주 1~2회(5.0%) 순으로 확인되었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혼자 38.0%, 친구 8.0% 순이었다. 또한 저녁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평균 48.1분으로 확인되었다.

[표 4-39] 일주일당 저녁식사 횟수(n=300)

(단위: %)

구분	A	B	C	D	계
전체	74.7	16.7	5.0	3.7	100.0
성별					
남성	76.3	14.5	6.6	2.6	100.0
여성	73.0	18.9	3.4	4.7	100.0

A: 주 5~7회
 B: 주 3~4회
 C: 주 1~2회
 D: 거의 안 한다

[표 4-40]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인원(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50.0	38.0	8.0	2.3	1.7	100.0
성별						
남성	46.7	38.2	8.6	4.6	2.0	100.0
여성	53.4	37.8	7.4	0.0	1.4	100.0

A: 가족
 B: 혼자
 C: 친구
 D: 직장 동료
 E: 그 외

평일에 외부에서 밥을 사 먹은 횟수는 일주일 기준 1~3끼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6끼, 거의 먹지 않는다(월 1회 미만) 순이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지출하는 평균 금액

은 1만 3,923.3원이었으며 남성은 평균 1만 1,335.4원을, 여성은 평균 1만 6,531.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1] 평일에 외부에서 밥을 사 먹은 횟수(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계
전체		36.0	23.7	15.7	13.7	7.7	3.3	100.0
성별	남성	34.2	24.3	16.4	13.8	7.9	3.3	100.0
	여성	37.8	23.0	14.9	13.5	7.4	3.4	100.0

A: 일주일 기준 1~3끼
 B: 일주일 기준 4~6끼
 C: 거의 먹지 않는다(월 1회 미만)
 D: 일주일 기준 7~9끼
 E: 일주일 기준 10~12끼
 F: 일주일 기준 13~15끼

[표 4-42] 주중 본인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4.0	28.1	40.7	14.2	13.0	100.0
성별	남성	3.1	32.3	38.6	15.7	10.2	100.0
	여성	4.8	23.8	42.9	12.7	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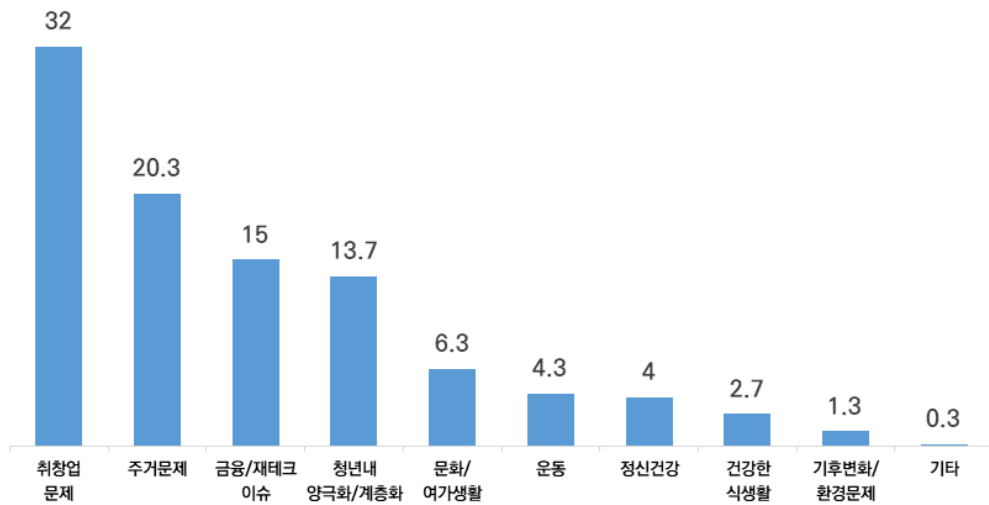
A: 5,000원 미만
 B: 5,000~10,000원 미만
 C: 10,000~15,000원 미만
 D: 15,000~20,000원 미만
 E: 20,000원 이상

고양시 청년이 주로 관심 갖는 영역은 취창업 문제(32.0%), 주거 문제(20.3%), 금융, 재테크 이슈(코인, 주식 등)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73.7%가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 45.3%가 지역사회를 신뢰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시에서 삶의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약 66.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그림 4-23] 고양시 청년들의 관심 분야(n=300)

(단위: %)



[표 4-43] 고양시 청년들의 관심 분야(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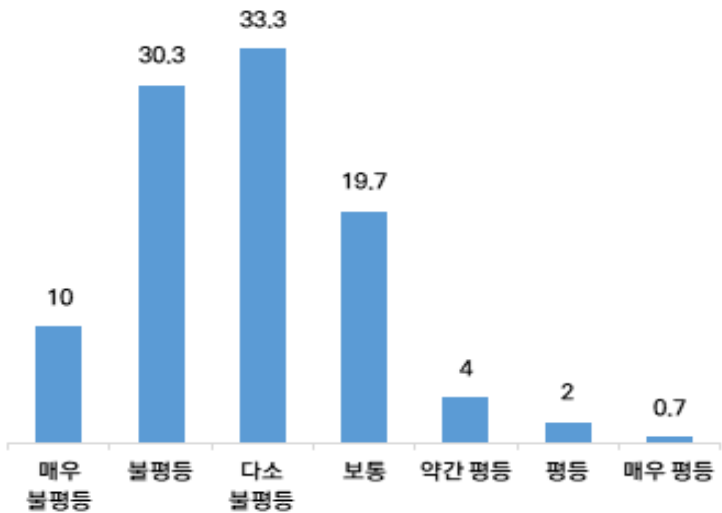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계
전체		32.0	20.3	15.0	13.7	6.3	4.3	4.0	2.7	1.3	0.3	100.0
성별	남성	29.6	19.7	13.8	15.8	4.6	6.6	4.6	2.6	2.0	0.7	100.0
	여성	34.5	20.9	16.2	11.5	8.1	2.0	3.4	2.7	0.7	0.0	100.0

- A: 취·창업 문제
 B: 주거 문제
 C: 금융/재테크 이슈(코인, 주식 등)
 D: 청년 내 양극화/계층화
 E: 문화/여가 생활
 F: 운동
 G: 정신 건강
 H: 건강한 식생활
 I: 기후 변화/환경 문제
 J: 기타

[그림 4-24] 주관적인 사회적 불평등 정도(n=300)

(단위: %)



[표 4-44] 주관적인 사회적 불평등 정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계
전체		10.0	30.3	33.3	19.7	4.0	2.0	0.7	100.0
성별	남성	11.8	27.0	30.9	21.7	4.6	3.3	0.7	100.0
	여성	8.1	33.8	35.8	17.6	3.4	0.7	0.7	100.0

- A: 매우 불평등하다
- B: 불평등하다
- C: 다소 불평등하다
- D: 보통이다
- E: 약간 평등하다
- F: 평등하다
- G: 매우 평등하다

[표 4-45] 주관적인 고양시 지역 사회 신뢰도 정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계
전체	3.3	3.0	7.7	40.7	27.3	15.3	2.7	100.0
성별	남성	5.3	3.9	6.6	39.5	30.3	13.2	100.0
	여성	1.4	2.0	8.8	41.9	24.3	17.6	100.0

A: 매우 불신한다

B: 불신한다

C: 다소 불신한다

D: 보통이다

E: 약간 신뢰한다

F: 신뢰한다

G: 매우 신뢰한다

[표 4-46] 주관적인 고양시에서 삶의 만족도(n=300)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계
전체	0.3	2.3	4.7	26.7	28.7	31.0	6.3	100.0
성별	남성	0.0	2.6	6.6	27.6	28.9	5.9	100.0
	여성	0.7	2.0	2.7	25.7	28.4	33.8	100.0

A: 매우 불만족한다

B: 불만족한다

C: 다소 불만족한다

D: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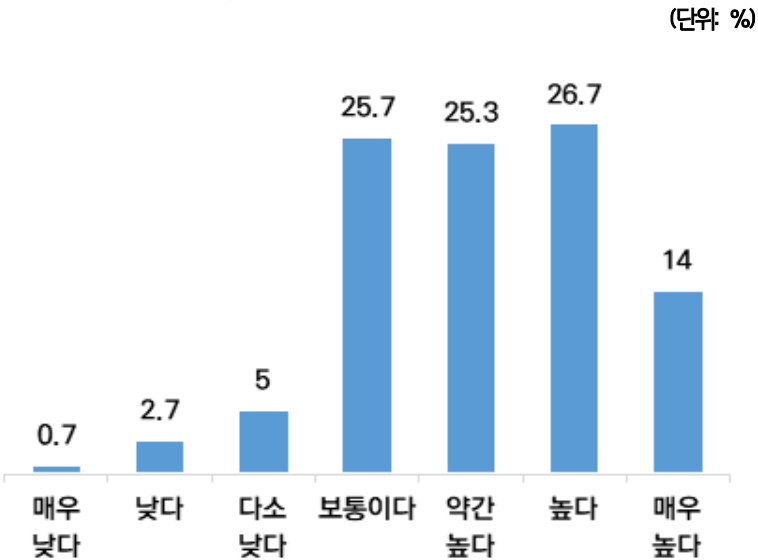
E: 약간 만족한다

F: 만족한다

G: 매우 만족한다

고양시 거주 청년 66%는 고양시에 높은 애착도를 보여 주었다. 25.7%는 보통을, 8.3%는 애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5] 주관적인 고양시 애착도(n=300)



[표 4-47] 주관적인 고양시 애착도(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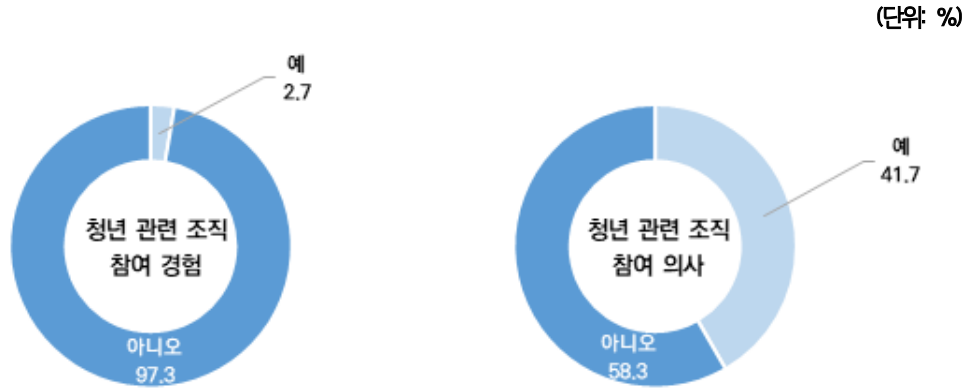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계
전체		0.7	2.7	5.0	25.7	25.3	26.7	14.0	100.0
성별	남성	0.7	2.6	6.6	27.0	24.3	25.0	13.8	100.0
	여성	0.7	2.7	3.4	24.3	26.4	28.4	14.2	100.0

A: 매우 낮다
B: 낮다
C: 다소 낮다
D: 보통이다
E: 약간 높다
F: 높다
G: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2.7%만 참여해 봤다고 답했으며, 참여 의향에서는 41.7%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중 8명은 실제 청년 활동에 참여해 보았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1개 관련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37.5%가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청년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인원을 제고하는 것이 청년 관련 조직의 극복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림 4-26]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n=300)



[표 4-48] 청년 관련 조직 참여 경험(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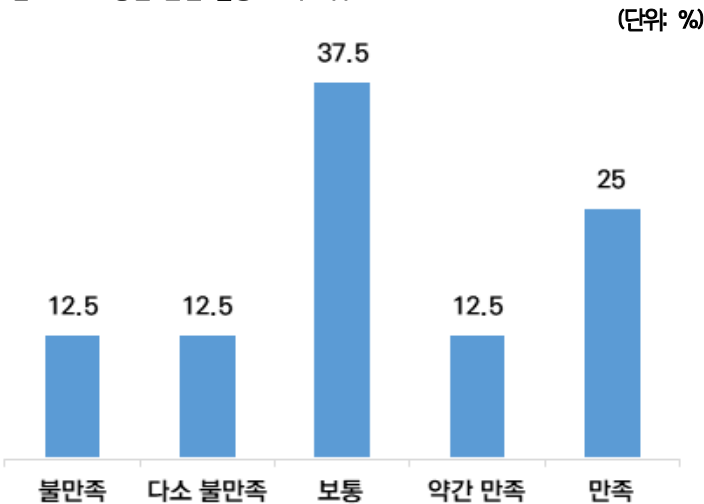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2.7	97.3	100.0
성별			
남성	2.6	97.4	100.0
여성	2.7	97.3	100.0

[표 4-49] 청년 관련 조직 참여 의사(n=300)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41.7	58.3	100.0
성별			
남성	44.1	55.9	100.0
여성	39.2	60.8	100.0

[그림 4-27] 청년 관련 활동 조직 개수(n=8)



[표 4-50] 청년 관련 활동 조직 개수(n=8)

(단위: %)

구분		1개	2개	계
전체		87.5	12.5	100.0
성별	남성	75.0	25.0	100.0
	여성	100.0	0.0	100.0

[표 4-51] 청년 관련 조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n=8)

(단위: %)

구분		A	B	C	D	E	계
전체		12.5	12.5	37.5	12.5	25.0	100.0
성별	남성	25.0	25.0	25.0	0.0	25.0	100.0
	여성	0.0	0.0	50.0	25.0	25.0	100.0

- A: 불만족한다
- B: 다소 불만족한다
- C: 보통이다
- D: 약간 만족한다
- E: 만족한다

제4절 정책 제언

청년층은 크게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서 현재 20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과 직장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대부분 1인가구로서 30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청년 대부분은 취업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고양시 청년 기구 활동과 청년정책 중간 지원 조직 이용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창업 문제를 비롯하여 주거와 청년 내 양극화, 계층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중간 지원조직에서 프로그램화되어 기획되고 추진된다면 정책 수요자인 청년에게 보다 매력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저조한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청년 중 경력 보유 여성의 청년 프로그램 참여와 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면, 고양시 애착심 혹은 지속 거주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거주 청년이 고양시만의 매력 혹은 장점으로 화훼, 의료, 방송 등을 선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 산업(Ag Tech, Bio Tech 등)의 유치, 신규 스타트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혹은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이 동반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등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결론: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발전 방안

제1절 '내일꿈제작소'의 세 가지 원칙

제2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제절 '내일꿈제작소'의 세 가지 원칙

1. 청년 당사자성

‘내일꿈제작소’의 비전과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의 당사자성이다. 고양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래 청년 지원공간 전문가의 진술처럼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 자신들이 당당히 시의 주체로서 인정받도록 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청년만을 위한 공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시민이자 주인으로서의 의식과 존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지원공간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들의 정서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이 부분의 수요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존 고양시의 청년공간인 28청춘창업소와 청취다방의 경우 고양시 청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년 지원공간이 고양시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고양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정도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청년 지원공간을) 몰라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데보다 좀더 좋고, 그런 데 가면 훨씬 편하고 더 좋아....

따라서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은 외형적으로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청년들이 오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공간이 주는 힘이 너무 커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폼 나고 예쁜 공간만 줘도 다 SNS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거나 약간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면 또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저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에 포토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요즘 청년들은 시각적인 정보와 볼거리의 영향이 큰 시대인 만큼 인테리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카페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칼럼에서 왜 청년들이 월세는 벌벌 떠는데 8,000원짜리 커피는 마시러 가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쉬는 날에도 방 한 칸짜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좋은 공간에서 잠시만이라도 벗어나 보자 (그런 거죠).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 지원공간에 청년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이러한 공간에 청년들의 목소리와 감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업을 많이 해 봤고, 지원공간을 제가 직접 만들고 운영해 봤는데 그때부터 그 물리적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에 섬이 돼 가고 있어요.

따라서 ‘내일꿈제작소’의 외형과 내부 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은 바로 고양시 청년정책의 상징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통해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충분한 메시지를 고양시 청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구상과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공간 구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이 보는 청년을 아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청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또 취업시켜야 하고 여기 와서 또 교육시켜야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사회가 엄청 변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도 변하고 그들의 생각도 변했어요.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취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막 AI와 로봇시대인데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유입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고양시는 청년들이 다 나가요.

위의 청년정책 전문가의 말처럼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공간도 변화된 청년상을 반영하여 공간과 운영프로그램 구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양시 기존 청년정책이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모형이 필요한 때이다.

기성세대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청년들은 정규직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청년은 사실은 정규직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다 목도한 거예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60세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대부분 40대 후반 50대로 다 잘리더라, 무슨 명분이든 만들어서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청년들이 정규직을 원할 것이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차별 때문인 거지 이 차별만 극복된다면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차피 일자리 만들어 봤자 맨날 후진 일자리 만들 거면 굳이 정규직 만들어서 이런 거 생색내지 마시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풀타임, 파트타임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를 만들어 달라.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돈을 벌면 사실 거기에서 뼈를 묻고, 충성할 생각 없다. 몇 년 돈 벌고 나도 더 재미있는 그 일을 발판으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소진됐을 때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특히 청년 지원공간 구상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 제공과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청년 지원공간) 뭘 완제품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완제품을 준다는 거는 (청년들에게) 스트레스예요. 내 머리에서 완제품이라는 게 이미 이거는 몇 십 년 전 얘기고... 다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받고 어떤 장을 펼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시설을 움직여야 되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냐면 이걸 갖다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와요.

청년들은 생각과 사고가 기성세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리듬 역시 다르다. 따라서 청년 지원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들 청년 세대 생활의 특징까지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하루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청년들이 활용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새벽 2시에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청년 리듬이 다르죠. 일 다 끝나고 그때 쉬면서 하는 거예요.

지원공간 이용 시간 문제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쿠킹클래스 이런 데 가 보고 싶지만, 업무 시간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험을 해 볼 수가 없고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만 항상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또한 청년의 특성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세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청년 지원공간 전문가의 진술처럼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들에게 미래의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이 청년들에게 미래의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인류의 안전과 자신의 삶 사이에 청년의 역할, 위험 사회에서 청년의 역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청년의 역할, 후배 세대를 위한 선배 역할 부여 등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고양시 특성

둘째, ‘내일꿈제작소’는 고양시 특성의 반영을 통해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년 지원공간과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 청년정책 전문가의 진술처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공
간 관련 연구와 정책이 기존의 경향만 답습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제 생각은 이제는 (중앙)정부 청년정책이나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복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부 그래 왔거든요. 무슨 조례 만드는 것, 기본계획 세우는 것이 거의
컨트롤 V 컨트롤 C해 왔거든요. 이제 현장에서도 “이게 아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구상에 있어 청년 당사자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공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지원공간 전문가의 아래
진술처럼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공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도
이미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청년들에게 정책적으로도 효과가 크지 않다. 따
라서 고양시의 특성과 청년 당사자성을 결합한 새롭고 효과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고양시에 만들어지는 공간도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공간대여 사업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한 청년정책과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를 연결하면 새롭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돼요.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면 고양시의 특색인 생태와 헬스케어(정신 및 육체 분야 모두)를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훼산업, 고양 국제꽃박람회를 통한 도시브랜드 사업, 고양시 청년농부, 4H회, 고양시 도시농부네트워크, 농협대학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인적 자본 역시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 지역적 특화 산업인 화훼를 포함한 도시농업과 청년정책을 연결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청년정책 전문가의 진술처럼 도시농업이나 스마트 농업의 경우 고양시가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청년정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청년 창업농을 지원할 법적인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도시농업이나 스마트 농업에서는 다양한 것을 키울 수가 있어요. 마르쉐에 가면 당근이 이만 해요. 그리고 당근이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별로 접시에 놓고 팔아요. 그런 것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이런 것에서 그런 수요와 그런 것을 한다면 도시농업이 고양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체험 농장은 도시 농업이 훨씬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은 종자에 관심이 많고 고양시 근처에 많잖아요. 이 근처에 도시농업 농장에 가 보면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많아요. 제가 지난 3월에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들었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가 보면 신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상추 받을 정원같이 만들었어요. 상추만으로 분홍색, 하얀색 등 다양한 색으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그림 같아요.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충분히 청년들에게 매력이 있다고 봐요.

도시농업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생태 분야 간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년 특성과도 잘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창직은 대부분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아요. 고양시에 환경 시민단체가 많이 있는데 산업화 여지가 매우 높은 이 분야에 사업적인 요소를 잘 아는 청년들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고양시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 불균형 문제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당 아침식사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거의 안 한다’가 47.3%, 혼자 식사를 한다는 비중은 70.7%로 나타나는 한편, 아침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5.5분에 불과하였다.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의 경우, 일주일 당 5~7회 식사한다는 비중이 각각 78.3%, 74.7%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일 외식(배달 포함) 횟수 또한 일주일 기준 1~3회, 그다음은 4~6회로 나타나 외식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평균 시간도 각각 35.7분, 48.1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청년가구는 평균적으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고 외식 빈도가 높으며, 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짧다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고양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들의 식생활과 외식 행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수한 품질의 지역 곡물·채소·과일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특화산업 분야인 도시농업을 연계한 청년 지원공간 사업을 통해 1인가구 등을 타겟팅한다면 청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양시에 청년 1인가구가 많은데, 주로 배달음식으로 먹거리를 때워서 식사의 질이 떨어져요. 이 부분은 도시농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켓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거나 공용부역에서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 팝업 쿠킹클래스를 열고 그 밥을 같이 먹으며 정보 교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방송영상콘텐츠 분야가 있다. 고양시는 2025년 IP 융·

복합 콘텐츠 클러스터³⁹⁾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양시 특성과 청년의 감성에 맞는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 분야 역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청년들에게 핫한 것으로 디지털아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르떼 뮤지엄 같은 곳이 있어요, 디지털아트가 고양시에 적합한 이유는 2025년 킨텍스 옆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되거든요, 이들 시설에 거의 대부분이 전시 콘텐츠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고양시의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고양시가 청년 창업이나 교육으로 디지털아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 분야는 융·복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도시 농업 분야와도 잘 연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농업인의 강점은 기성 농업인에 비해 IT에 강하기 때문에 IT를 활용하여 판로를 다양하게 뚫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시에 민화협회가 있는 것 아니죠? 고양시에 민화를 그리는 협회가 있고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민화를 그리는 분들과 디지털아트가 결합하게 되면 새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봐요.

39) “경기도 고양시에 2024년까지 방송영상, 웹툰, K팝 등을 총 망라한 IP(지적재산)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9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진행해 월등한 기반을 보유한 고양시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조성운영되며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IP)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간 매칭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콘텐츠기업, 타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기업에 네트워킹, 커뮤니티 구성 등 융·복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 개최 ▲콘텐츠기업의 제작지원 기반 제공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경제(2021.03.03.), “고양시에 ‘지적재산 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WYCK03>, (접속일: 2022.12.01.)

상기 청년정책 활동가의 진술처럼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 분야는 고양시의 전략산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문화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전략 산업은 바이오 의료 분야이다. 민선 8기 들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 등 대형 병원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라는 의과대학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소재 대형 병원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년의 특성을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청년 지원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성동구 오랑은 구내 대학인 한양대 심리학과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양대 심리학과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성동 오랑에서 자살위기관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양대 심리학과와 함께 의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지원공간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특성이 있어요. 거의 50% 이상의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고독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서와 심리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의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와 서울시 허브센터 전문가의 진술에서 잘 드러나듯이 성동구의 청년 지원공간이 효과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청년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관내의 한양대학교와 협력으로 다양하면서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행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 자본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 청년 허브센터장이 언급한 것처럼 많은 청년이 불안감을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정서적 특성과 지역의 행위자를 잘 연계하여 성동구는 다양한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일 시점 기준 지난 한 달간 느낀 주요 감정 관련 응답에서 비교적 잘 지냈다고 응답한 비중이 35.3%로 확인되었으나 12% 정도는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1.7%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우울(8.0%), 식욕 부진(5.3%), 어떤 일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고(4.7%), 외로움 등을 느낀다(3.7%)고 응답하였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의 청년이 우울, 불안, 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지난 2년간 오랑에서 전달체계를 운영해 본 결과, 청년들이 단순히 정보를 찾기 위해 저희 센터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랑에 오지 않고도 직접 정보를 찾을 수 있음에도 오랑을 방문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ateway)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관내의 명지병원은 이미 원내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명지병원의 노하우와 인력을 활용하여 고양시 청년 대상으로 효과적인 청년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직원이 전체 직원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심 프로그램 같은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직원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 예술 치유센터랑 제가 환자 공감 센터를 맡고 있는데 환자 보험 센터랑 결합해 가면서 약간 가벼운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이라든가 음악회 때 가벼운 걸 제공하기도 하며 조금 진행되시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된 프로그램 플러스 진료까지도 제공하는 하는 것을 저희가 하거든요.

3. 고양시 기존 청년 지원공간 간 차별성과 협력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세 번째 구성 원칙은 기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간 차별성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인 청년의 당사자성과 두 번째 원칙인 고양시 특성에 비해 수단적인 특성과 부분적 특성이 있지만, 연구자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구성의 원칙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의뢰한 고양시 청년담당관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고양시 청년공간 구성에서 이 세 번째 원칙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지원공간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의 진화 과정도 이전의 청년 지원공간의 기능과 차별화되면서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의 기능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청년 지원공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무중력지대는 공간에 특화된 것이라고 하면 청년 지원공간 2세대인 오랑은 상담식 정보전달체계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공간 운영의 오랜 역사와 인적 자본이 잘 구축된 서울시와 달리 고양시에 서 이러한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의 진화적 분화라는 관점보다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운영의 문제점을 통해 새로운 청년공간의 구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지원센터 만들면, 여기에 어떤 물리적 시설을 넣을 것인가 하는 고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년지원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런 것에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청년 공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청취다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름 자체가 청년 취업 관련된 쪽에 치우쳐 있었잖아요. 청년담당관이 예전에는 일자리 쪽에 있었고, 청년정책도 조금 일자리 쪽에 치우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취다방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색깔을 좀 많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거는 좀 다양화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간마다 좀 특색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를 해버리니까 청취다방의 색깔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술한 것처럼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러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자본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 구상에서 단순히 물리적 시설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운영의 주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가 지금 군포시 청년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고양시도 그렇고 군포시도 마찬가지예요. 담당공무원과 청년 지원공간 운영자 간 관계에서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공무원)가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해 하고 지시하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청년 지원공간 운영자를 꽉 잡고 있고 조금만 풀어지면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부속 기관이다 하는 인식이 공무원에게 굉장히 강해요.

보통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드웨어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고민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의 청년정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양시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고민은 없어요.

지금까지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 왔는데 청년의 당사자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의 효율적 구상과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인적 자본의 확충과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가 고양시 청소년 재단을 세팅하면서 맨 처음에 찾은 게 누구냐면 청년 조직이었어요. 그걸 이제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재단 혼자 정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활동가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최종 목표도 이 같은 공간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청년 지원 공간의 구상과 운영이 가능하다.

넓게는 청년정책, 좁게는 청년 지원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과 청년 지원공간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확장됨으로써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하는 그룹을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지원공간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청년 지원공간)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캠프예요. 연결해 주는 일종의 복덕방 같은 거죠. 청년 복덕방 같은 거죠. 정보 제공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매니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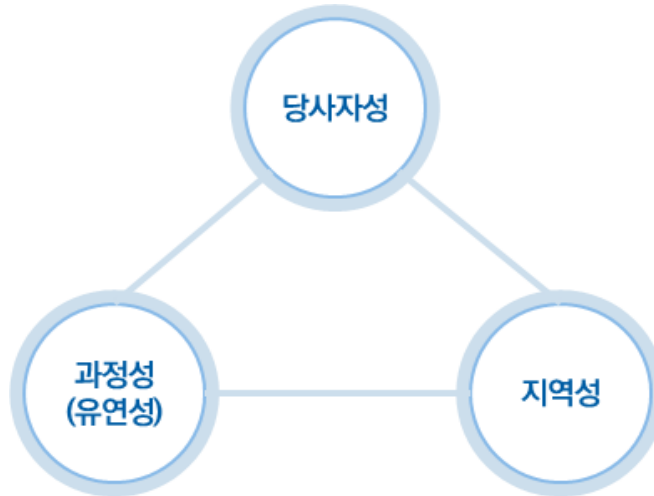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설을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이 필수예요. ...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 제공 중에는 청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건 필요해요. 이건 청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할 거, 아니 그런 정보를 줘야 하는 그런 측면도 이런 거잖아요.

제2절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1.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기본 개념: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 공간 정책

‘내일꿈제작소’ 구성의 3원칙은 연구자가 이 연구의 연구 틀로 활용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Youth Policy From Below)’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의 핵심은 정책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의 조건과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연구자는 내일꿈제작소 구성의 3원칙과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책을 결합하여 내일꿈제작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내일꿈제작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모형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당사자성, 정책의 유연성(융통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결합한 상향식 정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시간에 따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최대한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며, 지역적 특색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양시의 청년 지원공간은 고양시 청년들이 지원공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가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정책의 핵심 가치는 소통과 공감으로 귀결된다.

[그림 5-1]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모형



〈자료〉 연구진 작성.

2. 내일꿈제작소의 주요 사업 분야

1) 상담과 정보 제공

청년 지원공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정보의 질 문제이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시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정보로는 주거 관련 정보와 취·창업 관련 정보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순위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36.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느끼는 청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관련 애로사항 중 주거 공간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2순위로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2.3%로 나타나고 있어,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 초반인 경우 원하는 일자리의 정보가 부족하다(10.0%)는 것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 지원공간에 양질의 취·창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오랑’은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도 이러한 서울시의 청년 지원공간 사례를 활용하여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을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 관내의 명지병원에서는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명지병원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양시 청년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환자들에게 사진 같은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아로마 세러피 그리고 청각적으로 음악까지 해서 3가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기(청년 지원공간)다가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청년 상담 같은 경우에도 타기팅은 비슷할 거고 실제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도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 예술치료도 제공하지만 일대일 상담도 해요. 그래서 일대일 상담에서 고위험군은 정신과 진료나 관련한 상담과 연계하기도 해요.

명지병원에는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술치료 프로그램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 이러한 명지병원의 예술치료 사업을 청년센터와 연계하면 예술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술치료를 특화하여 청년 대상으로 직업 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워낙 잘되어 있고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요.

청취다방은 현재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예술치료 같은 개념을 잡아서 직업탐방과 창취업으로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예술치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할 때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해 드리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 외에 뭔가 전시키고 그럴 때는 음악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가 치유 프로젝트도 있지만 음악회 같은 걸 일상적으로 로비나 아니면 특별한 홀에서 계속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그냥 아마추어도 있지만 정말 유명한 분들도 오셔서 다양한 장르로 환자나 또 거기 직원이나 내원객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2) 지역특화 산업 연계 분야

도시농업 분야와 함께 고양시 산업의 특성과 연계한 분야가 미디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고양시는 지식재산(IP) 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뿐만 아니라 공동에 고양글로벌 웹툰센터를 건립한다. 따라서 IP 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글로벌 웹툰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미디어에 특화된 청년 프로그램을 새로운 청년 지원공간에 구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양문화재단 산하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촬영 스튜디오 영상 미디어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데, 예전에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다가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새로운 걸 해 보자라고 저희가 올해 해본 게 디지털아트를 주제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사업을 했어요. 이게 일반 교육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교육은 그냥 이론식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식인데 이 사업은 쌍방향적인 수업이 특징이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위의 방송영상 콘텐츠 전문가의 진술에서 잘 드러나듯이 디지털아트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고양시 다른 청년 지원공간이나 관련 시설인 고양글로벌 웹툰센터,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와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디지털아트 교육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실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상위 3명 정도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관에 직접 인턴십도 시켜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도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콘셉트가 좋았던 게 뭐냐면 산업 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고 진짜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특히 디지털아트를 중심으로 한 청년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관련 업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양시의 대표적인 미디어 관련 기업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양시에 CJ 라이브, 교육방송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걸 진짜 미디어아트에 집중하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어요.

클래스를 여러 개 운영하신다고 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급자 과정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NFT도 해 보세요. NFT라고 하면 미디어 영상물에도 약간 저작권 개념인데 디지털 저작권처럼 여기저기 팔 수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로도 괜찮아요.

또한 디지털아트는 저작권 형태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모델의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아트의 융·복합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전시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농업과도 쉽게 연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 구상도 가능하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디지털아트의 영상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포스트아트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결과물을 고양시에 현대 고양 모터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덕양구에 있는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곳에 전시를 하고 싶었어요, 디지털 아트 결과물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노래하는 분수대나 빛마루방송센터에 전시할 수도 있어요.

3) 취·창업 분야

고양시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 지원공간에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위를 차지할 만큼(1순위 응답 22.3%, 복수 응답 49.0%)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양시가 청년정책에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순위 관련 응답 또한 주거지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1순위 응답 23.7%, 복수 응답 57.3%)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청년들은 일자리 관련 문제점으로 생활하는 데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34.0%) 외에도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고(21.0%),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15.3%)는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응답한 ‘고양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청년 맞춤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 17.7%, 공공기관·지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 지원공간에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높은 비중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양시 청년정책에서도 취·창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 지원공간 내 이와 관련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지원공간에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동작업실 등을 조성하여 작업 능력을 향상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법무, 세무·회계 분야 조언을 제공하는 등 청년 창업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가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청년 간 네트워킹 파티,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대구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어떤 건물 하나를 빌려서 식당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식기랑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고 여기서 1분기나 2분기 정도 여기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기회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식품 자재만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내일꿈제작소에 뭔가 공유 오피스 같은 걸 해서 거기서 배달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제 주변에서 보니까 카페를 그렇게 많이들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거래처 대표님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카페 오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좀 많이 하세요, 막상 개업하고 나니까 커피도 공부하려고 했더니 끝도 없고 커피머신도 막 만져보니까 잘못 샀고, 너무 고가가 필요 없었는데, 중저가면 충분했었는데 그런 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오피스랑 그런 당연히 공유 오피스가 있다면 그거 관련된 강의도 자동으로 연결되겠죠.

4) 핵심 시설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이 청년들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교육을 위해서 XR 촬영 스튜디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XR 촬영 스튜디오를 통해 고양시 청년들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정말 만약에 청년 지원공간을 콘텐츠 미디어 쪽 분야로 가려고 한다면 XR 촬영 스튜디오가 필수예요, 이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사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강연을 하기에는 진짜 최적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온라인 교육이라고 그러면 비대면으로 특강을 하거나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또 시도해 본 게 줌이에요. 줌으로 학생들이 다 접속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강사가 발표하면 여기에는 줌 화면에 얼굴이 이렇게 띄워져 거기서 이렇게 쌍방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한 기존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인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은 물론이고 고양글로벌 웹툰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청년농장, 농협대학교, 명지대학교 예술치료센터 간 쌍방향으로 청년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4.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청년 네트워크 구성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지원공간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청년 지원공간 운영을 통해 고양시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시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래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청년 활동가의 진술처럼 현재 고양시의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동이 점차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목소리를 내봤자 피드백이 없어요. 저도 이제 좀 지쳤어요. 목소리를 내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야 효능감 같은 게 생기는데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으면 피드백을 (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저는 원하는데 그냥 항상 일방적인 소통인 거죠.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협의체분들도 그래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입법 예고를 해도, 정책 제안을 해도 피드백이 없으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뭔가 할 때마다 무조건 청년 기업에 위탁을 주라. 저는 그거라도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보다도 하나의 자신의 성과를 중요시하거든요. 경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거 했었다라는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예산이 적아도 하실 분들은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 기업이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색다른 아이디어나 뭔가 좀 그동안 해 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진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아래로부터의 청년 지원공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 공간을 운영하는 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청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정책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여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동구가 부러운 것이 청년 관련 단체가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을 해서 그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운영자들이 청년들과 계속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책화하는 부분이 인상에 남았어요.

이미 서울시 성동구는 청년 지원공간을 청년 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여 청년 지원공간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도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를 청년 지원공간 정책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넓게는 청년정책, 좁게는 청년 지원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과 청년 지원공간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확장됨으로써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하는 청년 그룹을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지원공간의 이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스스로가 운영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아래로부터의 청년지원정책)



〈출처〉 연구진 작성. 사진자료는 순서대로 서울창업디딤터 웹사이트, http://didimteo.or.kr/rent/rent_work/(접속일: 2022.12.28.); 명지병원 제공; 조선일보(2022.12.26.) “XR스튜디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제작 허브... XR산업 활성화 이끌어.”(접속일: 2022.12.28.); 인터뷰즈(2022.2.28.), “도시 속 옥상 정원에서 요가 하실래요? ‘녹녹’이 공유정원을 만드는 이유.”(접속일: 2022.12.28.).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양시(2018).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10-11.
-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 석호원·김소담(2021).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 연령별 전입 및 전출 사유분석을 중심으로」. 고양시정연구원. 기본 21-06.
- 오재호 외(2020).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0-14.
- 윤태영·박이대승·정준영(2020).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용원·박주로·임병훈(201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이원재 외(2015).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이현정·하현정(2020). 「고양시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28청춘창업소를 중심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정책 20-07.
- 전경숙(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 조진우(2021). “지역 청년 활력을 위한 청년기본조례의 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 짐 아이프(2018). 「아래로부터의 인권: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인권의 실현」.
- 여지영 역. 서울: 인간과 복지, 123.

[언론/보도자료]

고양신문(2021.09.06.).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집값 ‘기죽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8>.

(접속일: 2022.10.18.)

고양신문(2021.11.09.). “경기도 1인가구 월평균 소득 289만원 “생활비 161만원.”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99>.

(접속일: 2022.10.18.)

동아일보(2020.11.29.). “동시 탄생한 분당과 일산, 집값 격차 커지는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9/104195037/1>

(접속일: 2022.6.12.)

비전21뉴스(2021.7.6.) “고양시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2021년도 사업 본격 추진.”

<http://vision21.kr/news/article.html?no=141905>(접속일: 2022.11.24.)

서울경제(2021.03.03.). “고양시에 '지적재산·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WYCKO3>.(접속일: 2022.12.01.)

서울경제(2021.10.26.) “'집통령' 꿈꾼 노태우...분당·일산 만들고 주택 200만호 공급,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4B9I61>(검색일: 2022.6.10.)

이데일리(2022.5.23.) “고양특례시 표심, 경제·교통 '자족도시' 완성 공약에 촉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9846632331872&mediaCodeNo=257&OutLnkChk=Y>(접속일: 2022.6.12.)

인터비즈(2022.2.28.). “도심 속 옥상 정원에서 요가 하실래요? ‘녹녹’이 공유정원을 만드는 이유.”(접속일: 2022.12.28.).

조선일보(2022.12.26.) “XR스튜디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제작 허브... XR산업 활성화 이끌어.”(접속일: 2022.12.28.)

[온라인 자료]

고양시 청취다방 웹사이트, <https://goyangjobcafe.kr/>(접속일: 2022.11.13.)

고양특례시 웹사이트, 조직도, https://www.goyang.go.kr/www/user/cityHall/BD_openDeptTree.do(접속일: 2022.11.18.)

고양특례시 웹사이트, 2021년 고양시 기업체 현황, 고양시 행정정보공개,

http://www.goyang.go.kr/www/publicntt/BD_selectPublicNtt.do?publicNttSn=272602&q_publicJobSn=(검색일: 2022.8.3.)

서울창업디딤터 웹사이트, http://didimteo.or.kr/rent/rent_work/(접속일: 2022.12.28.)

청년포털 웹사이트, 기관소개, <https://2030.go.kr/etc/introYth>(접속일: 2022.11.30.)

청년포털 웹사이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https://2030.go.kr/etc/ythResume>(접속일: 2022.11.30.)

28청춘창업소 메이커스페이스 웹사이트, <https://28makerspace.modoo.at/>(접속일: 2022.11.13.)

[기타자료]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0. 5.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29호, 2020. 5.29., 일부개정].

부 록

[부록 1]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고양시정연구원 안 지 호 박사팀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진행하며,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 값은 익명으로 수집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엄격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감 없고 즉각적인 답변이 학문적 성과 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항을 확인하자마자 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진실된 의견이 의미 있는 척도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11월

연구팀 올림

안지호 연구위원(ajh@goyang.re.kr)

김은경 연구원(ektammykim@goyang.re.kr)

정고은 연구원(chloe@goyang.re.kr)

SQ. 응답자 특성

1-1-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 ① 만 20세 미만 ② 만 20세~24세 ② 만 25세~29세
 ② 만 30세~34세 ② 만 35세~39세

1-1-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1-1-3. 귀하의 현재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1-3-1. 귀하께서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구)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덕양구 ② 일산동구 ③ 일산서구

2. 고양시 청년 거주 관련

2-1. 다음의 다양한 청년 가구 형태 중,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1인가구] 부모와 따로 살고 본가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함
- ② [1인가구]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 받음
- ③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 ④ 기타(조손 가구, 형제 자매 동거, 친인척 동거 등)

2-2. 귀택의 세대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본인을 포함한 같은 공간에서 동거하는 가족

본인을 포함해 __명

2-3. 다음 중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일반 단독주택
- ② 다가구 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 ④ 아파트
- ⑤ 다세대/연립주택
- ⑥ 오피스텔
- ⑦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 ⑧ 고시원
- ⑨ 기숙사
- ⑩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⑪ 쪽방
- ⑫ 기타(_____)

2-9. 귀하께서는 고양시에서 주택을 탐색하는 과정 중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2-9-1. 고양시에서 주택을 탐색하는 과정 중 귀하께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저렴한 주택 부족
- ② 치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
- ③ 주거시설이 좋지 않음(환기, 난방, 오래됨 등)
- ④ 원하는 집(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함
- 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찾기 어려움(부동산 사기에 대한 불안함)
- ⑥ 나이나 성별 등 때문에 차별을 겪음
- ⑦ 기타(_____)

2-10. 귀하께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고양시가 고향이라서/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 ② 직장 관련 이유
- ③ 학업 관련 이유
- ④ 주거 비용이 저렴해서
- ⑤ 서울과 가까워서
- ⑥ 편리한 생활 기반 시설(병원, 쇼핑 등)
- ⑦ 도시 곳곳의 자연경관(호수, 녹지 등)
- ⑧ 기타(_____)

3. 청년 지원공간 및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3-1.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3-1-1.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에 대하여 귀하께서 **아는대로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2.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3-1-3. 귀하께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별 1개 선택]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3-1-4. [하드웨어] 귀하께서는 현재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시설 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5. [소프트웨어] 귀하께서는 현재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의 프로그램 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아래는 현재 고양시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청년 지원공간의 예시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존재하는 청년 지원공간**과 **앞으로 설립, 운영될 청년 지원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선택]

청년 지원공간명	소개
청취다방Hub	청년의 취·창업·문화·소통 공간 공간: 아아룸, 기동차룸, 활기차룸, 뜨아룸, 아이스룸, 바닐라룸, 라떼룸, 청취 갤러리
우리동네 청취다방	고양시 청년들을 위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카페와 협력하여 스터디, 취업/문화 활동 공간 제공
28청춘창업소	창업보육공간(23개실) 개방형 정보교류공간(코워킹, 메이커스페이 등)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고양시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전담 상담 창구, AI면접 지원패키지 등 제공

매우 불필요 하다	불필요 하다	다소 불필요 하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귀하께서 고양시 청년 지원공간에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공유주방, 건강한 식재료 지원, 채소 재배 키트, 무료 쿠킹 클래스 등)
- ②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사지원, 공인중개료 반값 수수료,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등)
- ③ 커뮤니티 프로그램
- ④ 고민 상담 프로그램
- ⑤ 공유 오피스
- ⑥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⑦ 스터디 카페
- ⑧ 문화/예술 프로그램(공예, 회화 등)
- ⑨ 공연 시설 대여
- ⑩ 휴식 공간
- ⑪ 운동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 ⑫ 기타(_____)

3-4. 귀하께서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개 선택]

전혀 모른다	모른다	다소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안다	안다	매우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1. 귀하께서 알고 있는 고양시 청년정책을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내용이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양시 청년정책]	
정책목표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실현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교육]: 청년의 역량 강화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
	[주거·생활]: 청년의 자립 지원과 삶 기본권 보장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사회출발자산 형성 지원 청년 건강 증진 및 문화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참여·생활]: 청년의 주도성 확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전달 체계 확립 청년의 권익 보호
--	---

3-4-2.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정책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3-4-3. 고양시 청년정책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 귀하께서는 현재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7. 귀하께서는 앞으로 고양시가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먹거리 지원(건강한 식재료 지원, 쿠킹클래스 운영, 식비 부담 완화)
- ②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 ③ 자기탐색 지원 사업(e.g. 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 ④ 고용(취업, 창업) 지원
- ⑤ 소득 지원(생활비 등)
- ⑥ 자산 지원(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⑦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⑧ 학자금 지원
- ⑨ 신용회복 지원
- ⑩ 여가/문화 지원
- ⑪ 법률 지원
- ⑫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⑬ 커뮤니티 지원(취미 및 정보 공유)
- ⑭ 교통수단 관련 지원(교통비 할인, 교통수단 대여 등)
- ⑮ 기타(_____)

4. 취·창업

4-1. 귀하께서는 현재 고양시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 ② 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부족(e.g. 고용안정성,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
- ③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 ④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 ⑤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려움
- ⑥ 나이, 성, 학력과 같은 차별 문제
- ⑦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 부족
- ⑧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
- ⑨ 기타(_____)

4-2. 귀하께서는 일을 그만 둔 기간에 월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비와 구직활동에 필요한 월 평균 비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 기준)

구분	개인 기준
4-2-1. 최소 생활비	월 평균 만원
4-2-2.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	월 평균 만원

4-3. 귀하께서는 청년들이 구직하는데 고양시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② 청년 맞춤 일자리, 정부지원사업 등 취·창업 정보 포털 운영
- ③ 공공기관/지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 ④ 취·창업 선배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 ⑤ 진로 적성 검사를 위한 적성 검사
- ⑥ 면접 준비 프로그램(교통비 지원, 정장 대여, 모의면접 등)
- ⑦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교육
- ⑧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수당
- ⑨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지원금(seed) 제공
- ⑩ 청년 창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 ⑪ 주거 환경 및 교통 시설 개선
- ⑫ 취업 스트레스(우울감, 좌절감 등)에 대한 심리 상담
- ⑬ 기타(_____)

4-4. 귀하께서 구직(취업 혹은 창업)에 소요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년 ___개월

4-5. 귀하께서 고양시에 위치한 회사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망설여지는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낮은 급여 수준
- ② 다양한 업종의 부재
- ③ 기업 정보 획득의 어려움
- ④ 업무량 과다
- ⑤ 기업의 영세한 규모
- ⑥ 낮은 성장(자기 계발) 가능성
- ⑦ 열악한 근무 환경
- ⑧ 조직문화(권위적, 불합리 등)
- ⑨ 열악한 주거 환경
- ⑩ 불편한 교통 시설
- ⑪ 기타(_____)

4-6. 귀하께서는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산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 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순위 필수 선택]

- ① 의료 바이오 ② 화훼(꽃시장, 꽃박람회 등) ③ 도시농업
- ④ 방송 영상 콘텐츠 ⑤ 기타(_____)

5. 청년의 건강 및 삶

5-1. 귀하께서 **지난 한 달간** 주요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② 비교적 잘 지냈다
- ③ 상당히 우울했다
-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⑥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⑦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⑧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⑨ 마음이 슬펐다
- ⑩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⑪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5-2.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아주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최근 1년 동안** 이루어진 귀하의 주중 식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침식사, 점심 식사, 저녁식사로 나누어 귀하의 식사 행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침 식사

5-3-1-1.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아침 식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7회 ④ 거의 안 한다

5-3-1-2. 귀하께서는 대체로 누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
④ 직장 동료 ⑤ 그 외

5-3-1-3. 귀하께서 아침 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10분)

___분

점심 식사

5-3-2-1.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점심 식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7회 ④ 거의 안 한다

5-3-2-2. 귀하께서는 대체로 누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
④ 직장 동료 ⑤ 그 외

5-3-2-3. 귀하께서 점심 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10분)

___분

점심 식사

5-3-3-1.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점심 식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7회 ④ 거의 안 한다

5-3-3-2. 귀하께서는 대체로 누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
④ 직장 동료 ⑤ 그 외

5-3-3-3. 귀하께서 점심 식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10분)
___분

5-4.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고 사 먹는 경우가 평일 기준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집밥을 제외한 배달 음식, 포장 음식, 급식, 종교단체 제공 음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주일 기준 10끼

**: 평일 하루에 1끼는 배달 음식을 먹고, 1끼는 급식을 받는 경우
5일×(배달 음식 1끼)+5일×(급식 1끼)=10끼에 해당함.**

- ① 거의 먹지 않는다(월 1회 미만)
② 일주일 기준 1~3끼
③ 일주일 기준 4~6끼
④ 일주일 기준 7~9끼
⑤ 일주일 기준 10~12끼
⑥ 일주일 기준 13~15끼

5-4-1.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주중에 밥을 사 먹을 때, 본인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집밥을 제외한 배달 음식, 포장 음식, 급식, 종교단체 제공 음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 시 사용하는 비용 제외)

한 끼 평균 _____ 원

5-5.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들이 어떤 이슈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순위 필수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청년 내 양극화/계층화 | ② 기후 변화/환경 문제 |
| ③ 정신 건강 | ④ 건강한 식생활 |
| ⑤ 운동 | ⑥ 주거 문제 |
| ⑦ 취·창업 문제 | ⑧ 문화/여가 생활 |
| ⑨ 금융/재테크 이슈(코인, 주식 등) | ⑩ 기타(_____) |

5-5-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평등 하다	불평등 하다	다소 불평등 하다	보통이다	약간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7. 귀하께서는 고양시 지역 사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신한다	불신한다	다소 불신한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8. 귀하께서는 고양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9. 귀하의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0. 귀하께서는 타 도시와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1-1. 귀하께서는 고양시 청년 관련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DQ.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육수준]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포함) [1개 선택]

-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DQ2. 귀하의 최종학력 이수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DQ3. 귀하의 고등학교 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일반계/인문계
 - ② 특목고(과학고, 외고)
 - ③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 ④ 특성화고(상업계/공업계/농업계 등)
 - ⑤ 예술·체육고교
 - ⑥ 마이스터고교
 - ⑦ 기타

DQ4. 귀하의 대학(원) 전공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
열
⑤ 자연계열 ⑥ 의학계열 ⑦ 예체능계열

[경제활동 중 월 평균 소득과 유형]

DQ5. 현재 귀하의 주된 근로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직 종사자 | ④ 서비스직 종사자 |
| ⑤ 자영업/창업가 | ⑥ 판매 종사자 |
|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⑧ 기능원 및 관련 기종 종사자 |
|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 ⑩ 시간제 근무자 | ⑪ 군인 |
| ⑫ 주부 | ⑬ 학생 |
| ⑭ 무직/퇴직 | ⑮ 기타() |

DQ6. 귀하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 평균 _____ 시간

DQ7. 귀하의 월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전 _____ 원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Jiho Ahn*, Eun Kyeong Kim**, Go-eun Jeong***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revitalize the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the youth support space in Seoul, an interview with field experts, and a survey of 300 young people in Goyang C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researcher deriv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as the process, relevance, and locality of the policy.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the city to focus and select smart agriculture, media, considerable and information functions, and creative employment support func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in Goyang City .

Finally,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need to revitalize the youth network that can be in charge of youth policy as well as the youth support space in Goyang City through a new youth support space.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